국립극장 미르
NT OF KOREA MAGAZINE MIR



# NATIONAL REPERTORY SEASON 2018-2019

2018 08 Vol. 343

# CONTENTS


05
**받은 편지함**

07
**오브제**
찬란한 존재감 소고 김보나

09
**칼럼**
예술 작품 속 예술가 황미연

## SPECIAL

**2018-2019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12
**시즌을 시작하며**
여섯 번의 시즌을 잇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들 박혜주

14
**한눈에 보는 레퍼토리시즌**
299일간 만나는 40번의 행복

20
**국립창극단 시즌 프리뷰**
실험과 도약을 거쳐 이젠 '원숙'이다 유석재

22
**국립무용단 시즌 프리뷰**
중심과 다양성을 모두 잡다 심정민

24
**국립국악관현악단 시즌 프리뷰**
새롭게 물결치는 현대 국악사 송혜진

26
**NT Live·마당놀이·연극**
이유 있는 화제작을 만나다 장지영

28
**공연 일정표**

## VIEW

32
**프리뷰**
**공연예술박물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즐기고, 체험하며
공연예술에 한 걸음 가까이 한빛·이수윤

34
**리뷰**
**국립창극단 '흥보씨'**
대박과 쪽박, 텅텅박과 독박 김옥란

36
**예술가의 초상**
국립무용단 박혜지 김태희



「미르」는 국립극장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연예술 교양지입니다.
'미르'는 '용龍'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용처럼 힘차게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다는 국립극장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르」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필자의 글은 국립극장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조인스 디지털가판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GUIDE

42
**국립극장 이용 안내**

44
**8월의 기대작**

## MIX

50
**세계무대**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유럽 3개국 투어**
고대 그리스,
케이팝을 만나다 **플로리안 보크(번역 황연수)**

54
**시즌인문학**
**본질을 탐구하는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
소리의 아름다움을 확장하다 **박창학**

58
**우리 시대의 작곡가**
**황병기(1936~2018)**
시대의 아방가르드 **송현민**

62
**예술서적**
**이내옥 '안목의 성장'**
눈이 트이는 나날의 일기 **박사**

## NTOK

64
**예술배움**
**오감오락 음악여행단 임수빈 수강생**
새로운 감각을 일깨운 음악여행 **이아림**

67
**포스터 한 장**
**국립국극단 제7회 공연**
판소리 '흥부가' **이주현**

68
**국립극장 소식**
2017-2018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Thank You 파티 외

71
**극장사람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박지영·김진영·문마리아**
꿈꾸는 당신, 도전하라 **김보나**

72
**맺음** 전강인

**표지** 2018-2019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발행인** 이정우(극장장 직무대리)
**편집부장** 권영섭
**편집팀장** 박혜주

**기획 및 편집** 김보나
**사진** 전강인
**객원 편집** 김태희
**ISSN** 2287-6383
**발간등록번호** 11-1371032-000006-06
**발행처**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발행일** 2018년 7월 27일
**통권** 343호
**편집실** 국립극장 홍보팀
전화 02-2280-5816
이메일 magazine@ntok.go.kr
**편집·제작** 오니트(주) 02-337-3690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NATIONAL REPERTORY SEASON 2018–2019
# 패키지 티켓



絶頂 절정

이 시대 최고 공연과의 격조 있는 만남

An inspiring encounter with the finest Korean performance of this age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

국립극장

국립극장은 2018-2019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을 통해 창극 · 무용 · 국악관현악 · 마당놀이 등 전통에 기반을 둔 현대적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패키지티켓'을 이용하시면 합리적 가격과 풍성한 혜택, 보다 좋은 좌석에서 수준 높은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매 및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 40% 프리 패키지 다다익선

자유로운 선택, 더해지는 혜택

프리 패키지 R | 최대 **838,000**원, 프리 패키지 S | 최대 **610,000**원 할인

| 8개 이상 작품 선택 시<br>40% 할인율+무료관람권<br>(2작품 추가 선택 시마다 1매 추가 증정) | 자유선택공연 | 무료관람권 |
|---|---|---|
| | 8~9개 | 2매 증정 |
| | 10~11개 | 3매 증정 |
| | 12~13개 | 4매 증정 |

## 프리 패키지 청춘

공연가 1만원

청춘의 누리는 파격적 즐거움

각 50세트 한정

**청춘 2018 • 청춘 2019 50,000원**

-24세 이하 청소년만이 구입할 수 있는 프리 패키지입니다.
-2018 · 2019 각 연도별 5개 이상 작품 선택 시 적용 가능합니다.
-각 공연별 등급은 상이하여 공연관람 등급 확인 후 예매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30% 일편단심 패키지

내가 바로 진정한 마니아



| 창극 일편단심 | 무용 일편단심 I | 무용 일편단심 II | 국악관현악 일편단심 |
|---|---|---|---|
| · 변강쇠 점 찍고 옹녀<br>· 우주소리(가제)<br>· 박지혜(가제)<br>· 패왕별희(가제)<br>· 심청가 | · 더 룸(The RoOm)<br>· 가무악칠채<br>· 시간의 나이<br>· 색동<br>· 추석 · 만월 | · 더 룸(The RoOm)<br>· 가무악칠채<br>· 시간의 나이<br>· 색동<br>· 설 · 바람 | · 2018 마스터피스-황병기<br>· 다시 만난 아리랑-엇갈린 운명, 새로운 시작<br>· 앙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br>· 내셔널&인터내셔널 |
| R석<br>230,000원 ▶ 161,000원 | R석<br>230,000원 ▶ 161,000원 | R석<br>230,000원 ▶ 161,000원 | R석<br>200,000원 ▶ 140,000원 |
| S석<br>165,000원 ▶ 115,500원 | S석<br>170,000원 ▶ 119,000원 | S석<br>170,000원 ▶ 119,000원 | S석<br>130,000원 ▶ 91,000원 |

R석 • S석으로 선택 가능하며 패키지별 전 작품 동일 등급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 30% 화려한 외출 패키지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즐거움

| 롯데콘서트홀 | 예술의전당 |
|---|---|
| · 다시 만난 아리랑-엇갈린 운명, 새로운 시작<br>· 앙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br>· 내셔널 & 인터내셔널 | · 변강쇠 점 찍고 옹녀<br>· 색동 |
| R석 150,000원 ▶ 105,000원<br>S석 90,000원 ▶ 63,000원 | R석 120,000원 ▶ 84,000원<br>S석 85,000원 ▶ 59,500원 |

R석 • S석으로 선택 가능하며 패키지별 전 작품 동일 등급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 30% 마스터피스 황병기 패키지

명인의 예술세계를 만나다

| 황병기의 실내악 (9월 18일) | 황병기와 관현악 (9월 19일) |
|---|---|
| R석 100,000원 ▶ 70,000원 | S석 80,000원 ▶ 56,000원 |

R석 • S석으로 선택 가능하며 패키지별 전 작품 동일 등급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 30% 상설 패키지

정기적으로 만나는 즐거움

| 정오의 음악회 I | 정오의 음악회 II | 완창판소리 I | 완창판소리 II |
|---|---|---|---|
| 2018년 하반기 3편 | 2019년 상반기 4편 | 2018년 하반기 4편 | 2019년 상반기 4편 |
| 60,000원 ▶ 42,000원 | 80,000원 ▶ 56,000원 | 90,000원 ▶ 63,000원 | 80,000원 ▶ 56,000원 |

## 20% NT Live

패키지 영상으로 만나는 영국의 화제작

| NT Live I | NT Live II |
|---|---|
|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br>· 줄리어스 시저 | ·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br>·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
| 40,000원 ▶ 32,000원 | 40,000원 ▶ 32,0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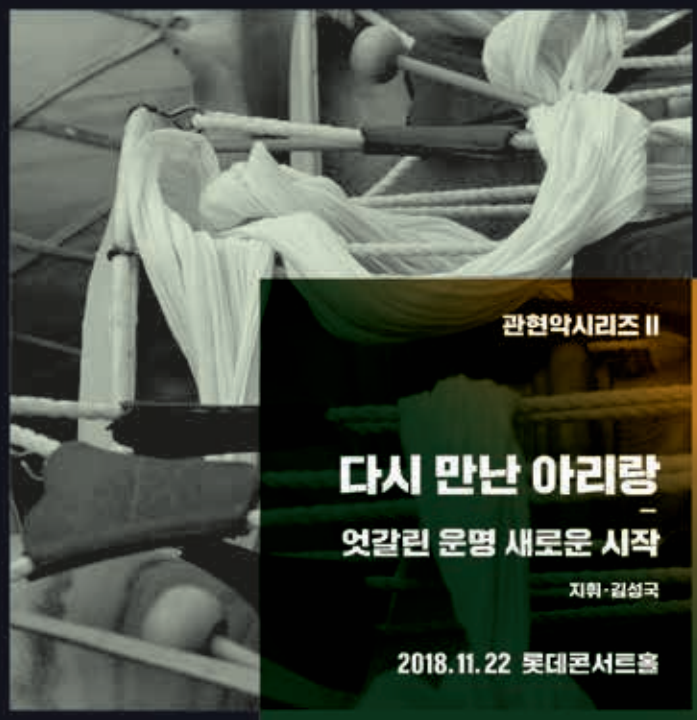



관현악시리즈 I

## 2018 마스터피스 – 황병기

지휘·원영석 | 위촉작곡·임준희

2018. 9. 18 – 19 국립극장 달오름



관현악시리즈 II

## 다시 만난 아리랑 – 엇갈린 운명 새로운 시작

지휘·김성국

2018. 11. 22 롯데콘서트홀



관현악시리즈 III

##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 – INTO THE LIGHT

작곡·양방언 | 지휘·최수열

2019. 3. 21 롯데콘서트홀



관현악시리즈 IV

## 내셔널 & 인터내셔널

2019. 6. 11 롯데콘서트홀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

### 2018 – 2019 국립국악관현악단 시즌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알차게 관람하기] 30% 할인받고 네 개의 관현악 시리즈를 모두 섭렵해보자!**

〈2018 마스터피스〉, 〈다시 만난 아리랑〉,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 〈내셔널&인터내셔널〉

R석 ~~200,000원~~ → 140,000원 | S석 ~~130,000원~~ → 91,000원

**[즐겁게 참여하기] 관객음악학교 〈아마추어 관현악단〉와 악기 포커스 〈대금〉 중 한 가지 선택!**

**신청기간** : 2018년 9월부터 ~ | **운영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6월 | **참가비** : 30만원 (악기 레슨, 리허설 참관, 공연 관람 등 포함)

*자세한 문의는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립극장 고객지원센터 02-2280-4114)

# 「미르」는 모든 독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 정보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몇 가지 공연과 전시는 따로 메모해두고 예매까지 마쳤습니다. 공연 소식 외에도 제주민요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공동체 문화와 집단 사유의 꽃', 시즌인문학 기사 덕에 힐링이 됐습니다. 글을 쓰신 양영자 님을 직접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 제주민요를 들어볼 정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공연뿐 아니라 사라져가는 '한국 문화'(복식·음식·지역 축제·민요 등)와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따금씩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최선영 님(독자엽서)**



남편의 권유로 읽게 됐는데, 덕분에 예술 분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호(6월호)에서는 '춤의 즐거움을 끌어안는 법'이란 기사를 보고 특히 놀랐는데요. 강사 분이 제 딸하고 너무도 닮아 반갑더라고요. 외국인국악아카데미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화정 강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윤삼옥 님(독자엽서)**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미르」를 만났습니다. 특히 좋았던 기사는 '작품을 빛내는 다섯 가지 요소'라는 제목의 '향연'을 다룬 글입니다.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 곳곳에 많은 이들의 섬세한 배치와 의도가 조화롭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감독·기획자뿐만 아니라 무용가나 연기자처럼 직접 무대에 서는 분들을 인터뷰한 기사도 실리면 좋겠습니다.

**김가은 님(독자엽서)**

**「미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자엽서와 이메일(magazine@ntok.go.kr)은 물론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에 대한 감상이나 국립극장과 「미르」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보내주세요.

글의 분량이나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당첨자 연락을 위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국립극장 | 국립창극단



| 신창극시리즈2 | 연출 김태형

# 우주소리 가제

**SOUND IN THE UNIVERSE**
(tentative)

2018.**10.18**THU - **10.27**SAT

**국립극장 | 달오름**

SF창극의 탄생. 아, 이 얼마나 기발한 도전인가!



| 신창극시리즈3 | 연출 박지혜

# 박지혜의 신작 가제

**PARK JI HYE**
(tentative)

2019.**1.18**FRI - **1.26**SAT

**국립극장 | 하늘**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

창극의 새로운 접근! 박지혜와 국립창극단의 만남

찬란한 존재감

# 소고

지름이 일곱 치에서 여덟 치 되는 나무 테두리에 얇은 소가죽을 씌우고, 긴 손잡이를 끼워 만든 소담하고 어여쁜 보름달. 작은 북이라 하여 이름 붙은 소고다. 하지만 화려한 손재간과 발재간이 더해지면, 이름과 달리 무대에서 무엇보다도 큰 존재감을 과시하는 악기이기도 하다. 북이 가진 묵직함이나 장구가 가진 화려함은 없어도, 소고만이 낼 수 있는 소박하면서 정갈한 소리가 있다. 앞뒤로 통통 소리를 내며 무대 언저리에 위치하던 소고가 재비의 손 안에서 팽그르르 돌면 이내 머지않아 소고재비는 마치 눕듯이 하늘 위로 날아올라 빙글빙글 돌기를 반복한다. 다리로 크고 둥근 원을 그리며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떨어지길 반복하는 이 동작은 일명 자반뒤지기라 한다. 연풍대를 돌며 뛰어오르는 모습이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존재감을 과시하는 다른 악기에 가려 보이지 않던 소고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순간이다.

누군가는 무대 위 중앙에 자리한 이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혹은 큰 소리로 무리를 이끄는 이가 주인공이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대 언저리, 혹은 농악대 행렬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소고가 이토록 눈부시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무대 위 주인공을 정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소박한 악기 소고가 찰나의 순간 가장 화려하게 빛난다.

글 **김보나** | 사진 **전강인**



국립극장 | 국립창극단

# 변강쇠 점 찍고 옹녀

MADAM ONG

2018.**10.18**THU - **10.21**SUN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만 18세 이상 관람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

# 예술 작품 속 예술가

미국의 간판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문에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다. 그러나 영화와 글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테네시 윌리엄스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연극학을 전공한 뒤 할리우드의 연극 회사 소속으로 시나리오를 쓰며 작가의 꿈을 이어간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던가. 그가 쓴 희곡 '유리동물원'은 1944년 시카고에서 초연된 후 큰 인기를 얻어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게 된다. 이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등 대작을 집필해 미국 대표 극작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다졌다.

특히 그의 작품에는 불완전한 가정사와 더불어 억압된 성역할 등이 주로 다뤄진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가정환경이 평범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무능력한 아버지, 히스테릭한 어머니, 조현병을 앓는 누나에다 경제공황이라는 시대적 문제까지 겹쳐 우울한 청년기를 보낸 극작가의 삶은 '유리동물원'의 주인공 톰과 닮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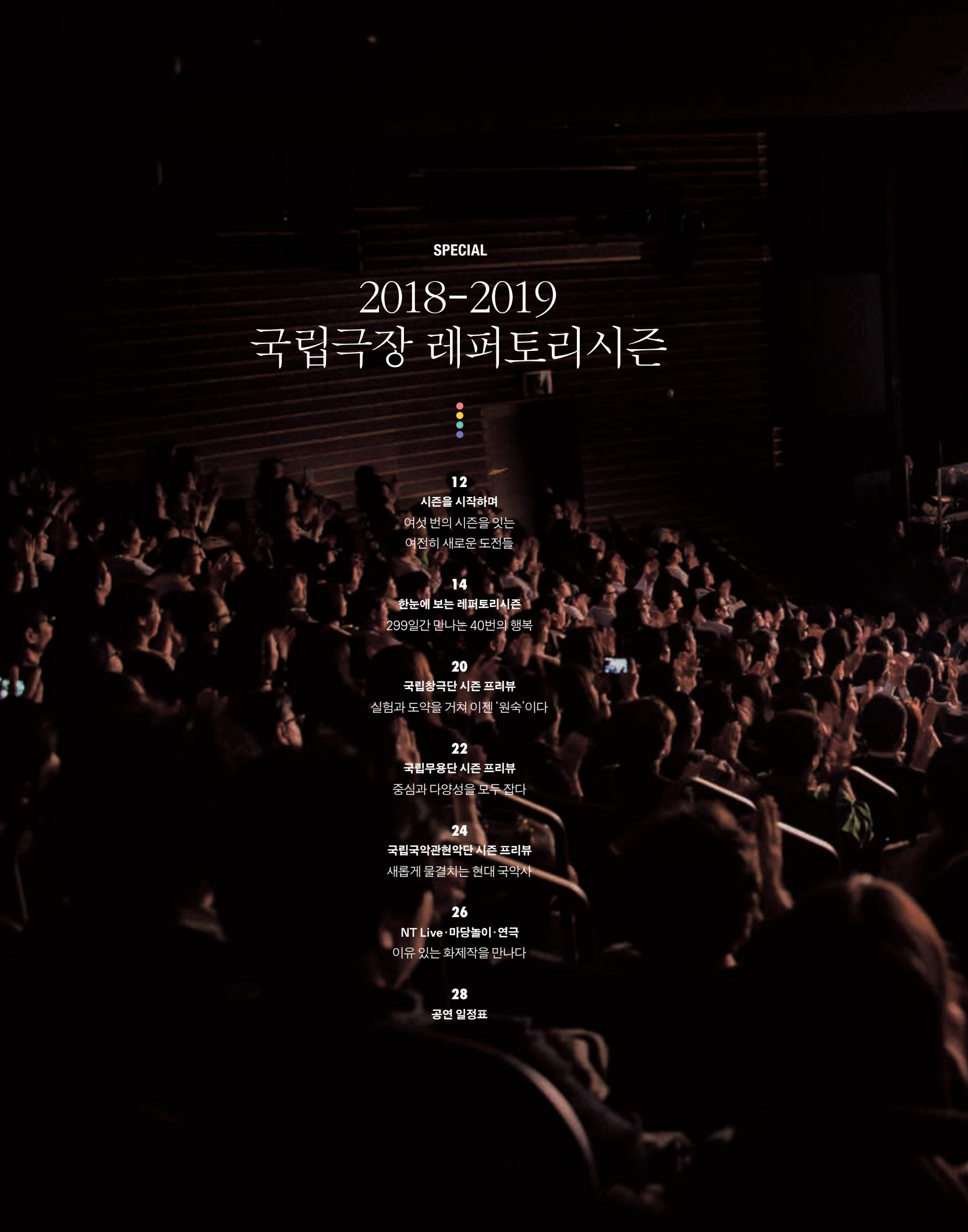
'유리동물원'은 아버지의 부재로 무너져버린 가족을 그리고 있다.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가정을 떠나버린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느라 히스테릭해진 어머니, 아만다.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기르며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했고, 아이들에게 집안의 경제 문제에 대해 하소연하거나 아이들의 행동을 조종하려 드는 히스테릭한 엄마로 그려진다. 이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어머니에게마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공포에 빠져 아무리 무리한 요구라도 어머니의 뜻에 따르고, 시도 때도 없는 그녀의 히스테리를 받아내는 '착한'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실제로 아만다처럼 예민하고 짜증이 많으며, 신경질적인 양육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과연 어떤 성격적 특성을 갖게 될까.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양육자가 바라는 기준에 맞추어진 삶을 통해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인정받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키워내지 못하고, 예쁨 받기 위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싫은 소리 한번 못하는 '착한 아이'가 돼버리는 것이다.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느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이, 그들의 내면은 우울과 불안으로 점철되고, '착한 아이'를 연기하느라 그만큼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므로 겉으로는 밝지만 속은 우울한 두 가지 모습을 갖게 된다.

우리 사회에도 이 같은 착한 아이와 아만다가 무수히 존재한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혹독하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타이거맘'이 우리 사회의 아만다라고 할 수 있다. 자녀 주위를 맴돌며 학업과 교우관계, 심지어 취업까지 간섭하며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헬리콥터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듯 우리는, 명작의 문장을 읽다 보면 각 캐릭터의 말과 행동에 숨겨진 인물의 성격을 통해 종종 우리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작품 속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당대의 문화를 함께 살펴보면 아리송하던 해석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한다. '유리동물원'처럼 예술가의 개인사에서 탄생한 작품이 무대라는 공간을 거쳐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이슈를 제시하기도 한다. 오늘의 독자여,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 고전을 통해 해답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

글 **황미연** 심리학과 문학을 좋아한다. 만인의 사랑을 받는 명작 소설을 살펴보며 소설 속 주인공들을 성격을 심리 분석하는 '문제적 주인공만 오세요'를 썼다.



SPECIAL

# 2018-2019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12**
**시즌을 시작하며**
여섯 번의 시즌을 잇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들

**14**
**한눈에 보는 레퍼토리시즌**
299일간 만나는 40번의 행복

**20**
**국립창극단 시즌 프리뷰**
실험과 도약을 거쳐 이젠 '원숙'이다

**22**
**국립무용단 시즌 프리뷰**
중심과 다양성을 모두 잡다

**24**
**국립국악관현악단 시즌 프리뷰**
새롭게 물결치는 현대 국악사

**26**
**NT Live·마당놀이·연극**
이유 있는 화제작을 만나다

**28**
**공연 일정표**





### 시즌을 시작하며

# 여섯 번의 시즌을 잇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들

기본에 집중하면서도 기발한 도전을 이어가는 신작과
완성도 높인 레퍼토리 등 총 40편의 작품이
일곱 번째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을 풍성하게 채운다.

2012년 9월, 국립극장은 레퍼토리시즌을 선포하고 과감한 도전을 계속해왔다. 달리다 보면 긴 호흡으로 진중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시기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시즌을 맞아 기본에 충실하게 한 작품 한 작품 준비했다. 그러나 변함없이 기발한 도전을 이어가는 신작과 완성도 높인 레퍼토리에 기대감이 생긴다. 2018-2019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은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의 신작과 레퍼토리, NT Live·국립극장 마당놀이 등 총 40편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2018년 9월 5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299일간 관객과 만나게 된다.

일정 기간의 공연 프로그램을 미리 구성해 관객에게 제공하는 시즌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공연 콘텐츠, 안정적인 공연 공간, 충성 관객의 확보가 필수다. 국립극장은 여섯 번의 시즌을 거치며 이 기본 요소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혁신적인 신작을 제작하고 레퍼토리화하면서 공연 콘텐츠를 축적했고, 패키지 운영과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노력으로 관객들의 신뢰를 쌓아왔다. 축적된 여섯 번의 시즌 위에 더욱 다양하고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는 일곱 번째 시즌의 특징을 짚어본다.

**공간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도전,**
**다양한 중극장 레퍼토리 개발과 대형 신작**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도입 이후 국립극장 3개 전속단체의 행보에는 늘 '변화' '혁신'이란 말이 따라붙었다. 전통에 기반을 둔 현대 공연물을 만든다는 기본에 집중하면서도 늘 새로운 시도를 담았다.

2018-2019 시즌은 해오름극장 리모델링과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로 공연 공간이 제한돼 달오름극장, 하늘극장 등 중극장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예술의전당·LG아트센터·롯데콘서트홀 등 외부 공연장을 활용한다.

국립창극단은 동시대 관객이 보고 싶어 하는 창극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고 그 결실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특히 지난 시즌, '트로이의 여인들'의 유럽 3개국 투어로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았다. 창극의 진화를 거듭하기 위해 이번 시즌, 소재의 확장과 미래지향적 실험을 담아낸 세 편의 신작을 선보인다.

우선 대만 최고의 배우이자 연출가인 우싱궈吳興國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경극 희곡 '패왕별희'를 소재로 한 신작을 제작한다. 동시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연출가들과 만나는 '신창극시리즈 2·3'도 이어진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김태형·박지혜가 연출을 맡았다. 김태형 연출은 SF창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다크호스 연출가로 떠오르는 양손프로젝트의 박지혜 연출은 양손프로젝트의 실력 있는 배우들과 함께해 기대를 모은다.

국립무용단은 이번 시즌 특히 중극장 레퍼토리 개발에 집중한다. '동양의 찰리 채플린'이라 불리는 현대무용가 김설진의 '더 룸The RoOm'은 우리 춤에 새로운 컬러를 덧입힐 예정이다. 지난 시즌 첫선을 보인 국립무용단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넥스트 스텝 I'의 호평은 이재화의 '가무악칠채'라는 독립된 공연으로 이어진다. 이번 시즌에도 한층 도전적이고 발랄한 작품으로 구성된 '넥스트 스텝 II'가 관객을 만난다.

명절 기획 '추석·만월'과 '설·바람'은 전통춤의 풍류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국춤 대가들이 함께하는 정구호 연출의 '색동'은 '향연'을 잇는 대형 신작으로 국립무용단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될 기대작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2018-2019 시즌 개막작 '2018 마스터피스-황병기'를 시작으로, 남북한 국악관현악 음악을 한데 모은 '다시 만난 아리랑-엇갈린 운명, 새로운 시작',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음악가와의 협업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야심만만하게 기획한 '내셔널&인터내셔널'까지 중량감 있는 국악관현악 시리즈를 롯데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겨울의 낭만 '윈터 콘서트'는 가족과 연인들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음악 선물이 될 것이다.

연말연시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국립극장 마당놀이도 준비돼 있다. 이번엔 '이춘풍전'을 각색한 신작 '춘풍이 온다'를 선보인다. 해외 우수 공연물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는 NT Live도 신작 4편을 선보인다. 고전의 다양하고 현대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화제작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줄리어스 시저'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를 만날 수 있다.

**국립극장과 지역 극장 간의 새로운 협업 모델**

국립극장은 레퍼토리시즌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 극장과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전예술의전당·울산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시즌, 국립무용단 '향연'의 대전·울산 공연을 시즌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2018-2019 시즌에는 대전예술의전당이 제작하는 연극 '백치'를 달오름극장에,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울산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린다. 특히 2018년 9월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되는 박정희 연출의 연극 '백치'를 10월 달오름극장에서 2018-2019 시즌 공연으로 연이어 선보이는 것이 눈에 띈다. 서울에서 제작된 작품을 지역 극장이 초청해 공연하던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기획 단계에서부터 대전 초연과 서울 공연을 함께 추진해 지역 극장의 프로덕션을 서울에서 동시 공연함으로써 서울 국립극장과 지역 극장 간의 새로운 교류·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관객을 최우선으로!**
**파격 혜택을 담은 시즌 패키지와 복합문화공간 조성**

2018-2019 시즌은 패키지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공연 중심의 관객 혜택을 강화했다. 기존 '프리 패키지'를 '프리 패키지-다다익선' '프리 패키지-청춘'으로 나누고, 블라인드 패키지인 '시크릿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인다.

'프리 패키지-청춘'은 청소년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만 원에 5개 공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 공연명을 알리지 않고 5개 공연을 5만 원에 50세트 한정 판매한 '시크릿 패키지'는 7월 9일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되어 관객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프리 패키지-다다익선'은 충성도 높은 관객이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연 관람 혜택을 강화했다. 8개 이상 작품 선택 시 40퍼센트 할인에 무료 관람권 2매 증정, 작품을 2개 추가 선택할 때마다 1매씩 늘려 무료 관람권을 제공한다. 이뿐 아니라 예술가와의 만남, Thank You 파티 등의 특별한 혜택도 준비돼 있다.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공사와 지하주차장 공사도 진행 중이다.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관객과 시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해오름극장 리모델링은 객석의 가시성과 음향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한결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지하주차장 신설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질의 공연 콘텐츠뿐 아니라 국제 수준의 시설을 갖춘 공연장으로 재탄생할 국립극장을 기대한다.

정리 **박혜주** 국립극장 홍보팀장

한눈에 보는 레퍼토리시즌

# 299일간 만나는 40번의 행복

## 2018

### NT 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018년 9월 6~9일, 15일 | 달오름극장

이웃집 개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파헤치며 세상 밖으로 나오는 15세의 특별한 소년 크리스토퍼의 성장 드라마다. 2012년 영국에서 초연 이후 2013년 로런스 올리비에상 7개 부문 수상, 2015년 토니상 5개 부문을 수상한 히트작이기도 하다. 마리안느 엘리엇 연출의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국내 팬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작품이 될 것이다.



### NT Live '줄리어스 시저'

2018년 9월 8일, 12~15일 | 달오름극장

니콜라스 하이트너가 동명의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시저 암살에 가담한 브루투스가 파멸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다. 영화 '대니쉬 걸'로 국내 팬에게도 알려진 벤 위쇼가 브루투스 역을 맡았고, 미셸 페어리가 카시우스 역할을 맡았다.

### 국립국악관현악단 '2018 마스터피스-황병기'

2018년 9월 18~19일 | 달오름극장

시즌 개막작으로 선보이는 마스터피스는 고故 황병기의 음악으로 채워진다. 18일엔 그를 사랑한 예술가들이 실내악 팀을 구성해 그가 남긴 명곡을 들려준다. 19일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유수의 작곡가들과 함께 구축해낸 음악 세계를 담아낸다. 파격과 품격의 창작 정신으로 국악의 가치를 높인 황병기의 음악 세계를 경험해보자.

### 국립무용단 '추석·만월'

2018년 9월 25~26일 | 하늘극장

다가오는 명절에 국립무용단이 선보이는 다채롭고 풍성한 전통 춤사위로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 하늘극장에서 선보이는 국립무용단의 새로운 명절기획시리즈 '추석·만월'에서는 수확의 계절 추석에 맞춰 달빛 아래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둬들이는 흥겨운 춤을 만날 수 있다. 즐거운 휴일의 여유를 전통춤 나들이로 채워보자.

# 10



**연극 '백치'**

2018년 10월 3~7일 | 달오름극장

국립극장이 대전예술의전당과 함께 선보이는 박정희 연출의 신작으로 대전예술의전당이 2018년 개관 15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작품이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도스토옙스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박정희 연출 사단으로 다시 뭉친 배우 이필모와 김수현, 새로운 팜파탈의 탄생을 예고하는 황선화를 비롯한 최고의 제작진이 함께해 기대를 모은다.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2018년 10월 18~21일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2014년 초연 이후 4년 연속 뜨거운 매진 행렬을 이어오고 있는 국립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다. 힘든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열정적인 여성 옹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공감과 재미를 전한다. 자리가 없어 보고 싶어도 못 본 관객들은 지금, 서둘러 예매하시길!

**국립창극단 신창극시리즈 2 '우주소리'(가제)**

2018년 10월 18~27일 | 달오름극장

신창극시리즈는 일찍이 본인의 스타일을 구축한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창극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젊은 감각으로 중무장한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이고자 만들어졌다. 이자람에 이어 이번엔 스타 연출가 김태형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SF창극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어, 창극의 한계를 뛰어넘을 무대를 기대하게 한다.

**국립무용단 '더 룸The RoOm'**

2018년 11월 8~10일 | 달오름극장

'동양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수식어로 세계 무용계를 놀라게 한 현대무용가 겸 연출가 김설진이 국립무용단과 만나 우리의 전통춤에 새로운 컬러를 덧입힌 색다른 한국무용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극적 기법을 차용하는 피핑 톰 무용단의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방'이라는 한 공간이 빚어내는 상상력의 세계를 풀어낼 예정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시 만난 아리랑-엇갈린 운명, 새로운 시작'**

2018년 11월 22일 | 롯데콘서트홀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남북의 음악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공연은 북한의 보석 같은 음악을 발굴해 국악관현악으로 연주하고 분단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정서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곡가 김성국이 지휘를 맡아 프로그램 구성에 한창이다.

**국립무용단 '가무악칠채'**

2018년 11월 22~24일 | 달오름극장

지난 시즌 '넥스트 스텝 I'에서 선보인 '가무악칠채'는 국립무용단의 젊은 무용수 이재화의 작품으로, 대중과 평단의 센세이셔널한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무용에서는 낯선 칠채장단을 가·무·악을 이용해 다각적으로 변주한 작품이다. 강렬하면서도 감각적인 연출로 완성한 유쾌한 무대를 만나보자.

# 11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18년 12월 6~30일, 2019년 1월 1~20일 | 달오름극장

유쾌하고 속 시원한 풍자와 해학으로 매진 행렬을 이어오던 마당놀이가 올해는 달오름극장에서 더욱 가족적이고 포근한 무대를 선보인다. '심청전' '춘향전' '흥보전'에 이어 '이춘풍전'을 새롭게 각색해 선보이는 2018년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희대의 난봉꾼 이춘풍과 매력 폭발 기생 추월, 그리고 우먼 크러시를 보여줄 김씨 부인과 함께 겨울 추위도 잊게 할 흥겨운 마당놀이를 즐겨보자.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2018년 12월 20~21일 | 하늘극장

사랑하는 가족·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겨울 콘서트가 찾아온다. 토크와 영화,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윈터 콘서트'는 각자 가지고 있을 법한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되새기게 한다.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압도적인 사운드는 감동을 배로 안겨줄 것이다. 포근한 겨울, 낭만이 있는 '윈터 콘서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자.

**국립창극단 '송년판소리'**

2018년 12월 27일 | 하늘극장

2010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한 해의 마지막 밤을 수놓던 '제야판소리'를 대신해, 올해는 송년의 의미를 한층 더 의미 있게 담은 '송년판소리'로 2018년을 마무리한다. 깊이 있는 우리 소리와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뜻깊게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



# 12

# 2019



# 1

**국립창극단 신창극시리즈 3 '박지혜'(가제)**

2019년 1월 18~26일 | 하늘극장

2014년 동아연극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하며, 다크호스 연출가로 떠오른 박지혜가 신창극시리즈 세 번째 작품의 연출을 맡았다. 양손프로젝트의 배우들도 박지혜 연출의 첫 창극 도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함께할 예정이다. 박지혜가 연출하는 양손프로젝트의 공연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창극에서도 그 주문이 통할지 기대를 모은다.



## 2

**국립무용단 '설·바람'**

2019년 2월 5~6일 | 하늘극장

국립무용단의 새로운 명절기획시리즈 '설·바람'에서는 새해를 맞아 액을 쫓고 운을 부르는 기원의 춤이 펼쳐진다. 객석과 이어진 무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계절의 정취를 담은 다채로운 춤사위와 풍류를 전할 예정이다. 좀 더 특별한 경험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면 현장을 방문해 우리 춤의 생생하고 섬세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자.

**NT Live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2019년 3월 14~17일 | 달오름극장

3월의 NT Live 첫 상영작은 미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이어 두 번째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베네딕트 앤드루 연출에 시에나 밀러와 잭 오코넬이 주연으로 무대에 섰다. 2017년 영국에서 공연할 당시 배우들의 연기에 호평이 쏟아진 작품이다.



## 3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2019년 3월 15~17일 | LG아트센터

전 세계 무용극장의 성지라 불리는 샤요국립극장의 2015-2016 시즌 폐막작으로 올라 전석 기립 박수로 환호받은 작품이다. 프랑스의 국민 안무가라 불리는 조세 몽탈보가 안무와 무대 연출을 맡았다. 몽탈보 특유의 동화적인 상상력이 발현돼 한국춤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보여준다. 유럽 무용계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시간의 나이'가 드디어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

2019년 3월 21일 | 롯데콘서트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을 맡아 세계를 감동시킨 크로스오버의 거장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만드는 신작이다. 다악장 구조로 한 곡 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틱한 교향곡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감을 더한다. 이외에도 이제껏 연주되지 않은 양방언의 곡을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새로운 버전으로 작업해 초연할 예정이다.

**NT Live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2019년 3월 21~24일 | 달오름극장

3월의 NT Live 두 번째 작품은 실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한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다. 1962년에 공연된 에드워드 올비의 첫 장편 희곡으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극작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영국 공연 당시, 이멜다 스턴튼을 비롯한 콘레스 힐·루크 트레더웨이·이모젠 푸츠, 네 주인공의 연기에 유례없는 격찬이 쏟아지기도 했다.



4

**국립창극단 '패왕별희'(가제)**

2019년 4월 5~14일 | 달오름극장

중국 전통극 양식인 경극의 현대화 작업으로 잘 알려진 우싱궈 연출이 마침내 창극과 만난다. 초나라 패왕 항우와 그의 연인 우희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그린 작품이다. 특유의 화려한 의상과 뛰어난 미장센 그리고, 판소리와 다양한 음악 양식의 결합으로 한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또 한 편의 창극이 탄생할 것이라 자부하고 있다.

**국립무용단 '넥스트 스텝 II'**

2019년 4월 25~27일 | 달오름극장

국립무용단의 젊은 창작 프로젝트 '넥스트 스텝'이 두 번째 시즌을 맞는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안무가들은 '한국 전통춤에 기초한 현대적 해석과 창작'을 주제로 한국무용가만의 젊고 신선한 시각을 무대에서 풀어낼 예정이다. 반짝이는 상상력과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춤의 새로운 색깔 찾기에 나선 이들의 무대를 놓치지 말자.



5

**국립국악관현악단 어린이 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

2019년 5월 2~18일 | 하늘극장

2018년 5월 초연 당시, 큰 사랑을 받은 어린이 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가 다시 돌아온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동요부터 최신 동요 그리고 이번 공연을 위해 작곡된 '아무 없어' '엔통이의 노래'까지 총 17곡의 동요가 연주된다. 13인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에 노래 친구 6명의 노래와 연기가 함께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공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국립창극단 '심청가'**

2019년 6월 5~16일 | 달오름극장

거장 연출가 손진책이 대본·연출을, 명창 안숙선이 작창·도창을 맡아 5시간이 넘는 원작을 핵심만 압축해 2시간여 분량으로 매끄럽게 다듬었다. 2018년 초연에서 두 거장은 판소리의 멋과 맛을 살려낸 격조 있는 창극을 탄생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간결한 무대를 가득 채운 이 시대 최고 소리꾼들의 소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가올 6월을 기대해도 좋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내셔널&인터내셔널'**

2019년 6월 11일 | 롯데콘서트홀

2019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다시 한번 국악관현악의 르네상스를 일궈보고자 도전장을 내민다. 창단 이래 쌓아올린 음악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북한·베트남·이란·인도·대만·터키 등 다양한 국가와의 면밀한 음악 작업을 통해 범아시아적인 음악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가 공감하는 음악을 새롭게 개척해나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무용단 '색동'**

2019년 6월 29~30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향연'을 잇는 전통춤의 또 다른 변신. 국립무용단과 정구호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완성될 대형 신작 '색동'이 온다. 강렬한 색채와 간결한 미장센으로 극대화된 정구호 스타일 무대 미학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공연이다. '향연'이 사계절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춤의 향연이었다면 신작 '색동'은 '오방색'을 테마로 '향연'과는 또 다른 다채로운 우리 춤을 총망라해 보여줄 예정이다.



## 6 상설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018년 9월 5일·10월 17일·11월 7일
2019년 3월 6일·4월 10일·5월 22일·6월 26일 | 하늘극장

국립극장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공연 '정오의 음악회'는 2009년부터 만석을 기록하며 사랑받아온 국악 브런치 콘서트다.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매달 한 번씩 수요일 오전 11시를 친숙하면서도 수준 높은 우리 음악으로 채운다. 또, 이번 시즌에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배우 박정자가 해설을 맡아 관객을 만난다. '정오의 음악회'가 지난 10년간 국악 입문을 위한 관람 코스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선 예매가 필수다.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018년 9월 29일·10월 27일·11월 24일
2019년 3월 30일·4월 20일·5월 25일·6월 22일 | 하늘극장

판소리 한바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하며 그 가치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국립극장 대표 상설공연 '완창판소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무대를 이어간다. 1984년 12월 '신재효 100주기 기념공연'으로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4년간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부터 새로운 무대세트와 귀명창석이라는 새로운 좌석을 마련해 관객을 맞이하고 있어, 한결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판소리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국립창극단 시즌 프리뷰**

# 실험과 도약을 거쳐 이젠 '원숙'이다

긴 예술사적 경지에서 본다면, 20세기 전반기에 등장한
한국 특유의 무대예술 장르 창극唱劇은 2010년대 국립창극단에 의해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불과 6~7년 전만 하더라도 '창극'은 공연 마니아에게조차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젊은 관객 사이에서도 '창극 보러 국립극장 간다'는 말이 그다지 어색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2012년 레퍼토리시즌제를 도입하면서, 국립창극단은 혁신과 실험을 거듭해왔다. 또 2012년은 김성녀라는 탁월한 예인藝人이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낡은 것'으로 치부돼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창극이 대중과 다시 소통하는 대도약大跳躍의 시기를 맞은 것이다. 한태숙의 소름 끼치는 연출이 빚어낸 공포극 '장화 홍련'(2012), 창극을 그리스 신화와 접목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의 산물 '메디아'(2013), '오르페오전'(2016), '트로이의 여인들'(2016),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음악이 흐른 '서편제'(2013), 창극의 신기원이라는 평을 들은 '변강쇠 점 찍고 옹녀'(2014), 해외 유수 연출가가 춘향전을 충격적으로 재해석한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2014), 브레히트 작품을 창극화한 '코카서스의 백묵원'(2015), '홍보가'를 사이키델릭 아트psychedelic art로 미래화化한 '홍보씨'(2017) 같은 작품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실험성과 작품성에서 골고루 찬사를 받은 작품도 많았으나, 지나치게 앞선 형식과 각색 때문에 '체한' 듯한 작품도 있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험 정신인 법. 첫 3년(2012~2014)이 '실험기', 그다음 3년(2015~2017)을 '도약기'라고 한다면, 국립창극단은 이제 새로운 '원숙기'에 들어설 변곡점을 지나는 셈이다. 국립창극단의 2018-2019 레퍼토리시즌 프로그램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즌 첫 작품은 국립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는 고선웅 연출의 '변강쇠 점 찍고 옹녀'다. 2014년 초연 때처럼 26일이라는 뮤지컬식 장기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명성만 듣고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귀가 번쩍 뜨일 소식일 터. 외설적인 사설로 잘 알려진 '변강쇠타령'을, 역사의 굴레 속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선택하는 생명력 넘치는 여인의 스토리로 바꿔놓은 작품이다. 성性적인 요소조차 삶의 밑천으로 승화됐으며, 원작에서 질질 늘어지던 후반부는 '장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역동적인 뮤지컬로 리모델링됐다. 2016년 파리 공연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매혹적인 세계"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창극을 세계에 알리는 공을 세운 이 작품이 새로운 무대에서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해진다. (2018년 10월 18~21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올 초 이자람 연출의 '소녀가'로 첫선을 보인 신新창극시리즈는 그 두 번째인 '우주소리'(가제)가 맥을 잇는다. '젊은 예술가들이 만드는 창극의 현대적 소통과 교감'이라는 취지 아래 '실험성'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SF창극'이라니! 고선웅의 '홍보씨'에서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언스 픽션 장르다. 더구나 연출은 연극과 뮤지컬로 젊은 관객에게 흥행 보증수표와도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태형이다. 그가 상상을 초월하는 창극을 보여준다니 만사를 제쳐두고 가서 볼 일이다. (2018년 10월 18~27일, 달오름극장)

신창극시리즈 세 번째 작품은 '박지혜'(가제)다. 연극 '죽음과 소녀' '폭스파인더' 같은 충격적인 알짜배기 소극장 걸작을 만든 공동창작집단 양손프로젝트의 연출가 박지혜가 연출을 맡았다. 연출가와 배우의 역할을 구분 짓지 않고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즉흥연기를 통해 작품을 구성하는 연출 스타일을, 과연 창극 배우들과도 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건 또 얼마나 매력적인 작품이 될까. 불안과 기대가 극명하게 교차되는 신작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1월 18~26일, 하늘극장)

이번 시즌에도 빠지지 않고 해외 연출가의 대형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엔 '중국 경극京劇과 한국 창극의 만남'이라 할 수 있겠는데, 경극의 대표 레퍼토리인 '패왕별희霸王別姬'(가제)가 창극으로 공연된다. 연출은 대만 정상의 배우 겸 연출가로 최근 세계 여러 극장의 초청을 받은 우싱궈鳴興國다. 국립창극단이 공연한 '적벽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고전에서 따온 스토리는 지난 1000여 년 동안 우리 전통과 정서에 녹아들어 그리스비극처럼 낯선 것이 아니다. 초나라 항우와 그의 애희 우희의 사별 역시 그 한恨의 정조가 우리 창극에서 더욱 잘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우싱궈 특유의 화려한 몸놀림과 의상, 뛰어난 미장센이 더해지면 어떤 작품이 나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2019년 4월 5~14일, 달오름극장)

국립창극단은 실험극과 창작극이 아무리 많아도 판소리의 핵심을 빼놓지는 않는다. 올해 초연 때 '창극 진화의 흐름에 정점을 찍은 무대'라는 평을 들은 손진책 연출, 안숙선 작창의 창극 '심청가'가 내년 6월, 다시 무대에 오른다. 군더더기 없이 정갈한 무대와 의상, 창唱의 공력을 극대화한 소리로 관객의 찬사를 받은 이 작품은 다시금 창극의 본령을 일깨워줄 것이다. (2019년 6월 5~16일, 달오름극장)

국립창극단은 결코 '혁신'에만 몰두하느라 '기본'을 잃어버리는 단체 또한 아니다. 1984년부터 이어져온 '완창판소리'가 그것을 보여준다. 실험적인 작품과는 정반대로, 창극의 뿌리인 판소리를 편집 없이 3~9시간에 걸쳐 그대로 들려주는 무대를 통해 전통예술의 향기를 고스란히 지키는 것이다. 지난 시즌부터 새로운 무대 세트와 '귀명창석席'을 마련해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공연을 하는 사람이나 객석에 앉은 사람 모두 쉽지 않은 한판 승부다.

글 **유석재** 조선일보 문화1부 기자. 1990년대 초부터 공연 마니아로서 대학로를 들락거렸으며, 2014년부터 3년 동안 공연 담당 기자로 일했다. 지금은 다시 초야의 관객으로 돌아와 종종 공연장에 출몰하고 있다.

**창극 일편단심 패키지**

'변강쇠 점 찍고 옹녀' | '우주소리'(가제)
'박지혜'(가제) | '패왕별희'(가제) | '심청가'

R석 ~~230,000원~~ → 161,000원
S석 ~~165,000원~~ → 115,500원

국립무용단 시즌 프리뷰

# 중심과 다양성을 모두 잡다

전통의 재창조, 분야 간 융·복합, 혁신적 감각을 담은
다채로운 신작들. 골라 보는 재미를 선사하는 국립무용단의
레퍼토리시즌 공연 7편을 살펴본다.



한국 공연예술계와 예술 애호가에게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은 묵직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2012년 시작된 레퍼토리시즌은 국립극장의 3개 전속단체가 다채로운 기획과 작품을 선사하는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속단체 중에서 국립무용단은 동시대적인 감각에 혁신을 담은 한국 창작무용으로 레퍼토리시즌을 화려하고 의미 있게 빛내왔다. 오는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진행되는 2018-2019 레퍼토리시즌의 라인업에도 이러한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명절 시리즈 '추석·만월'과 '설·바람'을 필두로 '더 룸The RoOm' '가무악칠채' '시간의 나이' '넥스트 스텝 Ⅱ', 그리고 '향연'을 넘어설 대작 '색동'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재창조, 분야 간 융·복합, 혁신적인 감각을 담은 작품을 골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시간의 나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로 만들어지는 작품인 만큼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과 설에 한국무용처럼 잘 어울리는 예술은 없을 것이다. 명절 시리즈인 '추석·만월'과 '설·바람'을 통해, 각각 달빛 아래서 풍요로운 결실을 맞이하는 흥겨운 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액을 쫓고 운을 부르는 기원의 춤이 펼쳐진다. 기존의 '코리아 환타지'나 '정오의 춤'에서 꾸준히 공연된 전통춤에다 새로 재구성한 춤을 얹어 선사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정종임은 국악뮤지컬집단 타루의 대표로 다양한 공연을 만들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대중 친화적인 전통춤 공연이 탄생하지 않을까 한다. (2018년 9월 25~26일, 하늘극장 | 2019년 2월 5~6일, 하늘극장)

레퍼토리시즌의 폐막을 장식할 '색동'은 '향연'의 대대적인 성공에 힘입어 제작되는 후속작이다. 2015년 초연된 '향연'(연출 정구호)은 전통적인 선과 멋, 흥에 동시대적인 세련미를 더함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높인 바 있다. 정구호 연출에 따르면, 계절을 주제로 한 전작과 달리 '색동'에서는 전통 오방색을 각 장의 주제로 삼는다고 한다. 색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그만의 장기인 색의 유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연출하고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낼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2019년 6월 29~3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파격과 혁신 그리고 다이내믹**

위의 세 작품이 한국무용의 기본에 동시대적인 감각을 입히는 작업이라면, 유일하게 재연되는 '시간의 나이'에서는 타 장르와의 융·복합을 좀 더 혁신적으로 시도한다. 연출 및 무대를 맡은 프랑스 안무가 조세 몽탈보는 미술사와 시각예술을 전공한 후 무용계로 들어온 경력 때문인지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한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시간의 나이'에서도 문화적으로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그리고 장르적으로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무용과 영상을 효과적으로 크로스오버crossover 하고 있다. 2016년 초연 당시 국립극장과 세계 무용극장의 성지라 불리는 파리 샤요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의 공동 제작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9년 3월 15~17일, LG아트센터)

이번 시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중극장 레퍼토리의 강화를 빼놓을 수 없다. 달오름극장에 오르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한결 젊고 열정적이고 혁신적인 스타일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젊은 현대무용가 김설진을 초청해 만드는 '더 룸The RoOm'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김설진은 벨기에의 세계적인 현대무용단 피핑 톰Peeping Tom에서 활약한 실력자로 TV 프로그램 '댄싱9'을 통해 국내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더 룸The RoOm'에서 '방'은 누군가 머물다 사라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서는 공간으로, 따로 또 같이 공유되는 장소로 설정돼 있다. 흔적으로 가득한 공간이 기억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는 점이 매우 색다르다. (2018년 11월 8~10일, 달오름극장)

국립무용단 내에서 발탁한 젊은 창작자 이재화는 '가무악칠채'를 선보인다. 지난해 '넥스트 스텝 I' 초연을 통해 대중적인 수용력, 젊은 패기와 활기,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번에 단독 공연이라는 파격적인 기회를 얻었다. 전통음악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깔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록 콘서트 같은 흥겹고 열정적인 무대가 관객을 사로잡을 것이다. 30분짜리 초연작에는 미처 담지 못한 다양한 시도를 모두 펼친다고 하니 기대해보자. (2018년 11월 22~24일, 달오름극장)

젊은 창작 프로젝트인 '넥스트 스텝'은 올해에도 이어진다. 국립무용단이 단원에게 창작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기획공연이다. 지난 시즌 '넥스트 스텝 I' 무대에 오른 이재화에게 젊은 창작자로 단독 무대를 제공한 만큼 올해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듯하다. 시즌2로 명명되는 이번 '넥스트 스텝 Ⅱ'에서는 '한국 전통춤에 기초한 현대적 해석과 창작'을 주제로, 한국 무용가들이 신선한 창작력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도록 좀 더 탄탄한 제작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2019년 4월 25~27일, 달오름극장)

2018-2019 레퍼토리시즌 동안 총 7편의 레퍼토리와 기획공연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국립무용단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행군을 해야 한다. 더욱이 신작이 많은 만큼 국립무용단의 역량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즌이 될 듯하다.

글 **심정민** 무용평론가이자 비평사학자. 한국춤평론가회장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춤'과 '댄스포럼'을 필두로 다양한 언론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무용비평과 감상'(2015)과 '새로 읽는 뉴욕에서 무용가로 살아남기'(2016)외 다수가 있다.

**무용 일편단심 패키지**

'더 룸The RoOm' | '가무악칠채' | '시간의 나이' | '색동'
명절 기획공연 '추석·만월'(I), '설·바람'(II) 중 택일

R석 ~~230,000원~~ → 161,000원
S석 ~~170,000원~~ → 119,000원

**국립국악관현악단 시즌 프리뷰**

# 새롭게 물결치는 현대 국악사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내놓은 2018-2019 시즌 레퍼토리를 들여다보면
막힘없이 흐르는 긴 강물의 어느 한 굽이가 돌아드는 느낌을 받는다.
시대의 명인, 그의 영향력 아래 성장한 다음 세대의 주역들,
크고 작은 물결을 이루는 새 시즌의 공연들을 만나보자.



2018-2019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준비한 첫 번째 무대는 '2018 마스터피스-황병기'다. 지난 1월 작고한 음악가 황병기, 그가 생애 동안 가야금으로 써낸 현대 한국음악의 노정과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재임하면서 이뤄낸 국악관현악단 역사의 '변곡점'을 회고하는 무대다. 이틀간 진행되는 관현악시리즈 I '2018 마스터피스-황병기' 첫날에는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 황병기의 세계를 조명한다. 황병기의 대표작 '침향무'를 비롯한 독주와 중주곡, 여기에 노래가 곁들여지는 간소한 규모의 작품을 신중하게 선곡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과 작곡가가 친애하는 제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친숙한 작품들, 함께하던 연주자, 그를 사랑하던 청중이 모두 여기 있으나, 정작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를 마음으로 초대하는 뭉클한 음악회가 될 것이다.

둘째 날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서 기획했던 작품과 그의 기획을 빛나게 한 음악가들이 자리한다. 이른바 '황병기 초이스'로 주목받은 작곡가 정일련·임준희·나효신의 역작을 올린다. 황병기 예술감독 시절 부지휘자로 함께했던 지휘자 원영석이 그의 시대와 생각을 조명한다. 황병기가 왜 이들에게 주목했는지, 이들의 음악 역량이 우리 음악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음악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무대다. 임준희가 '침향무'를 주제로 작곡한, 황병기에 대한 오마주 '심향心香'이 위촉 초연된다. 더불어 국악관현악 작품의 새로운 음향 체계를 구사한 정일련의 '파트 오브 네이처' 3악장을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과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2중 협주곡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2018년 9월 18~19일, 달오름극장)

다음 시즌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하는 두 번째 무대는 2019년 3월, 국악관현악 작품에 처음 도전하는 음악가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자주 호흡을 맞춰온 지휘자 최수열이 펼치는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다. 더 이상 수식어가 불필요한 명곡 '프런티어!Frontier!' '프린스 오브 제주' 등 양방언의 작품을 그동안 국악관현악으로 듣기는 했지만, 이러한 곡은 서양 오케스트라에 국악기 몇 가지가 어울린 작품이다. '사운드'가 완연히 다른 연주에 대해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만일 양방언이 국악관현악을 '조리'하게 된다면 어떤 음향을 빚어낼지 궁금했다면, 이듬해 3월 무대를 손꼽아 기다려볼 만하다.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 1부에선 아쟁과 피리 파트를 과감하게 확장하는 등 양방언 스타일의 국악관현악 사운드를 30여 분 길이의 드라마틱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양방언의 '디자인'이 최수열의 지휘로 섬세하게 살아나 '국악관현악', 또는 '한국 현대 국악'의 보편성을 확보해가는 큰 걸음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2019년 3월 21일, 롯데콘서트홀)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레퍼토리도 고심하고 있다. 오는 11월, 김성국의 지휘로 무대에 오를 '다시 만난 아리랑-엇갈린 운명,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명곡을 국악관현악으로 소개하는 기획이다. 언뜻 10여 년 동안 북한의 노래를 주요 레퍼토리로 소개해온 국립국악관현악단 '겨레의 노래던'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번 기획은 노래보다 국악관현악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전통음악을 모티프로 한 북한 오케스트라 작품에 눈길을 둔다.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민족 양식의 확립'이다. 평양국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하다 탈북한 피아니스트 김철웅은 "북한에서 모든 예술 정책의 주체는 민족적인 것이다. 심지어 양악기조차도 조선음악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국악방송 인터뷰, 2018년 7월 2일 자)라고 말한다. 그런 기조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무대에서 연주될, '민요 삼천리-북한 오케스트라로 듣는 관현악 민요'(2005, 신나라)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 협주곡 '옹헤야'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겠다. 이 무대에서는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김성국의 새 작품도 초연될 예정이다. (2018년 11월 22일, 롯데콘서트홀)

다음 시즌 '관현악시리즈' 마지막 무대는 '내셔널&인터내셔널'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추진하는 세계 교류 무대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우리와 비슷한 전통악기 오케스트라를 보유한 아시아 국가와 협력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까지 영역을 넓혀왔다. 그러한 역량과 가능성을 작품으로 함께하는 무대다. (2019년 6월 11일, 롯데콘서트홀)

이 밖에도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그간 청중과 친근하게 만나온 장기적인 기획을 밀도 높게 구성했다. '겨울연가' '올드보이' 등의 음악감독으로 잘 알려진 이지수의 작·편곡으로 꾸며지는 '윈터 콘서트'(2018년 12월 20~21일, 하늘극장)는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한층 따스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연극배우 박정자의 사회로 진행되는 친절하고 격조 높은 국악 입문 프로그램 '정오의 음악회'(2018년 9·10·11월, 2019년 3·4·5·6월, 하늘극장)와 어린이 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2019년 5월 2~18일, 하늘극장)도 이어진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내놓은 2018-2019 시즌을 들여다보며 막힘없이 흐르는 긴 강물의 어느 한 굽이가 돌아드는 느낌을 받는다. 역사의 뒤안길로 걸어 들어간 시대의 명인, 그의 그늘에서 성장한 다음 세대의 주역들, 물결을 이루는 크고 작은 물보라 같은 레퍼토리…. 새 시즌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청중이 되어 이렇게 흘러가는 음악 현대사에 동행해볼 일이다.

글 **송혜진** 음악평론가·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유산인 국악의 외연을 넓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악관현악 일편단심 패키지**

'2018 마스터피스-황병기'
'다시 만난 아리랑-엇갈린 운명, 새로운 시작'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 I '내셔널&인터내셔널'

R석 ~~200,000원~~ → 140,000원
S석 ~~130,000원~~ → 91,000원



NT Live '줄리어스 시저' ©Manuel Harlan

**NT Live · 마당놀이 · 연극**

# 이유 있는 화제작을 만나다

국립극장 기획공연은 전통에 기반을 둔
전속단체의 공연과는 다른 색깔의 작품으로
국립극장의 외연을 넓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엔 어떤 색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킬지,
달오름극장에 오르는
국립극장 기획공연을 살펴보자.

2018-2019 시즌 국립극장 기획공연은 NT Live 4편과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그리고 초청작 연극 '백치'(대전예술의전당 제작)까지 총 6편으로 구성된다.

영국 국립극장이 2009년부터 선보여온 NT Live는 2014년 국내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세계의 화제작을 한글 자막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터운 팬 층을 형성하고 있다. 오는 9월엔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2018년 9월 6~9일, 15일) '줄리어스 시저'(2018년 9월 8일, 12~15일)를, 내년 3월엔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2019년 3월 14~17일)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2019년 3월 21~24일)를 달오름극장에서 상영한다.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이하 '한밤개')은 아마도 연극팬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품일 것이다. 15세 자폐증 소년 크리스토퍼의 성장을 그린 작가 마크 해던의 2003년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지난 2012년 영국 국립극장(이하 NT)에서 사이먼 스테판 대본, 마리안느 엘리엇 연출로 초연돼 이듬해 영국 로런스 올리비에상 7개 부문을 휩쓸며 웨스트엔드에서 장기 공연에 들어갔다. 장기 공연 중 지붕 붕괴 사고로 극장을 옮기기도 했지만 지난해 6월 초까지 공연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한밤개'는 여러 나라 무대에 올랐는데,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말 민간 제작사 제작으로 공연된 바 있다. 다만 창의적인 시청각 효과가 돋보이는 무대를 살리기 위해 레플리카 프로덕션을 택한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저작권료 때문에 멕시코(2013)에 이어 대본만 계약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택했다. 그 덕분에 영상으로나마 "스토리텔링과 스펙터클의 놀라운 조화"라는 찬사를 받은 오리지널 '한밤개'를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줄리어스 시저'는 2003~2015년 NT의 예술감독을 지낸 거장 니콜라스 하이트너가 올해 1월 선보인 따끈따끈한 신작이다. 하이트너가 지난해 10월 NT의 행정감독이던 닉 스타와 함께 새롭게 문을 연 브리지 시어터의 두 번째 작품으로 영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900석의 브리지 시어터는 NT의 새로운 황금기를 일궜다는 평을 받는, 하이트너와 스타가 벤처 투자 그룹 LTC의 지원을 받아 지은 상업 극장이다. 두 사람이 이끄는 런던 시어터 컴퍼니의 전용 극장으로 연간



국립극장 마당놀이

4~5편의 신작을 선보인다.

'줄리어스 시저'는 셰익스피어 원작을 현대적인 정치극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극 중 시저는 금발에 빨간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을 비롯해 "로마를 더욱 위대하게"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또한 반란의 주역으로 브루투스를 끌어들이는 카스카 역에 젠더를 바꿔 흑인 여배우를 캐스팅하는 등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담았다. 극장에서 군중석(입석)을 선택한 관객은 마치 로마의 시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화 '대니쉬 걸'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벤 위쇼가 브루투스 역으로 출연한다.

내년 3월엔 미국 현대연극을 대표하는 작가인 테네시 윌리엄스와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이 NT Live로 찾아온다. 영 빅 시어터가 지난해 선보인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는 윌리엄스에게 두 번째 퓰리처상을 안긴 작품이다. 베네딕트 앤드루가 연출한 영 빅 버전에선 시에나 밀러와 잭 오코넬 등이 거짓말 위에 놓인 위태로운 가족의 모습을 긴장감 있게 표현한다. 또 웨스트엔드의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 소니아 프리드먼이 이끄는 소니아 프리드먼 프로덕션SFP이 지난해 해럴드 핀터 극장에 올린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는 원작자 에드워드 올비를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한 첫 장편 희곡이다. 중년 교수 부부와 젊은 교수 부부, 4명의 인물을 통해 가족의 일그러진 현실과 이상을 그렸다. 제임스 맥도널드의 연출도 깔끔하지만 이멜다 스턴튼을 비롯한 네 주인공이 연기 배틀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작부터 고전까지, 놓칠 수 없는 즐거움**

국립극장이 초청한 대전예술의전당의 연극 '백치'도 주목해야 한다. 국립극장과 대전예술의전당은 지난해 기획공연 교류와 공동 제작 등에 나서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국립무용단의 '향연'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10월 대전예술의전당이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제작하는 연극 '백치'를 국립극장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백치'는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는 도스토옙스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순결한 인간이 탐욕과 위선으로 일그러진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비극을 다뤘다. 중견 연출가 박정희와 극작가 이미경이 섬세한 시선으로 원작의 매력을 한층 깊이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2018년 10월 3~7일, 달오름극장)

연말연시에 큰 사랑을 받는 국립극장 마당놀이는 '춘풍이 온다'로 관객을 만난다. 고전소설 '이춘풍전'을 원작으로 한 '춘풍이 온다'는 희대의 난봉꾼 이춘풍이 기생놀음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한 뒤 똑똑한 아내 김씨 부인 덕분에 개과천선하는 내용이다. '이춘풍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해 새로운 레퍼토리를 탄생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올해는 하늘극장이 아닌 달오름극장에서 한결 포근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크다. (2018년 12월 6일~2019년 1월 20일, 달오름극장)

극단 미추가 30년간 이끌어온 마당놀이는 2014년 국립극장 레퍼토리로 부활했다. 이번에는 연출가 손진책, 안무가 국수호, 작곡가 박범훈이 참여한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온 가족이 즐기는 공연 문화로 연령층을 확대해온 마당놀이는 특유의 해학과 풍자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소리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그 위에 배우들의 코믹 연기가 더해지는 것이 일품이다.

글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겸 공연 칼럼니스트. 네이버 올댓아트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에 공연 관련 글을 쓰고 있다. 깊이 있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글로 대중과 공연계를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18-2019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공연 일정표

| | | | | |
|---|---|---|---|---|
| **9월** | 5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하늘극장 | 해설 박정자 |
| | 6~9일, 15일 | NT 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 달오름극장 | 연출 마리안느 엘리엇<br>원작 마크 해던<br>극본 사이먼 스테판 |
| | 8일, 12~15일 | NT Live **줄리어스 시저** | 달오름극장 | 연출 니콜라스 하이트너<br>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 | 18~19일 | **시즌개막작**<br>국립국악관현악단 **2018 마스터피스-황병기** | 달오름극장 | 지휘 원영석<br>작곡 임준희·정일련·나효신 |
| | 25~26일 | 국립무용단 **추석·만월** | 하늘극장 | 재구성 김상덕·박재순·윤성철<br>연출 정종임 |
| | 29일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 하늘극장 | 해설 정회천 |
| **10월** | 3~7일 | 국립극장·대전예술의전당 **백치** | 달오름극장 | 연출 박정희 \| 각색 이미경<br>무대디자인 여신동 \| 조명 김창기<br>음악 장영규 |
| | 17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하늘극장 | 해설 박정자 |
| | 18~21일 |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 극본·연출 고선웅<br>작창·작곡 한승석 |
| | 18~27일 | 국립창극단 신창극시리즈 2 **우주소리(가제)** | 달오름극장 | 연출 김태형 |
| | 27일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 하늘극장 | 해설 정회천 |
| **11월** | 7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하늘극장 | 해설 박정자 |
| | 8~10일 | 국립무용단 **더 룸**The RoOm | 달오름극장 | 안무 김설진<br>음악감독 정종임 |
| | 22일 | 국립국악관현악단<br>**다시 만난 아리랑-엇갈린 운명, 새로운 시작** | 롯데콘서트홀 | 지휘 김성국 |
| | 22~24일 | 국립무용단 **가무악칠채** | 달오름극장 | 안무 이재화<br>음악감독 허성은 |
| | 24일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 하늘극장 | 해설 정회천 |
| **12월** | 6~30일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 달오름극장 | 연출 손진책 \| 작곡 박범훈<br>안무 국수호 \| 연희감독 김성녀 |
| | 20~21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 하늘극장 | 작곡·편곡 이지수 \| 연출 김형석 |
| | 27일 | 국립창극단 **송년판소리** | 하늘극장 | 해설 정회천 |

| | | | | |
|---|---|---|---|---|
| **1-2월** | 1월 1~20일 |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 달오름극장 | 연출 손진책 | 작곡 박범훈<br>안무 국수호 | 연희감독 김성녀 |
| | 1월 18~26일 | 국립창극단 신창극시리즈 3 **박지혜(가제)** | 하늘극장 | 연출 박지혜 |
| | 2월 5~6일 | 국립무용단 **설·바람** | 하늘극장 | 재구성 김상덕<br>연출 정종임 |
| **3월** | 6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하늘극장 | 해설 박정자 |
| | 14~17일 | NT Live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 달오름극장 | 연출 베네딕트 앤드루 | 극본 테네시 윌리엄스<br>주연 시에나 밀러·잭 오코넬 |
| | 15~17일 |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 LG아트센터 | 안무·무대 조세 몽탈보<br>영상 조세 몽탈보·얀 아르튀스 베르트랑<br>음악 마이클 니먼·아르망 아마르·모리스 라벨 |
| | 21일 | 국립국악관현악단<br>**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 | 롯데콘서트홀 | 작곡·총 연출 양방언<br>지휘 최수열 |
| | 21~24일 | NT Live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 달오름극장 | 연출 제임스 맥도널드 | 원작 에드워드 올비<br>주연 이멜다 스턴튼·콘레스 힐·<br>루크 트레더웨이·이모겐 푸츠 |
| | 30일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 하늘극장 | |
| **4월** | 5~14일 | 국립창극단 **패왕별희(가제)** | 달오름극장 | 연출 우싱궈 |
| | 10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하늘극장 | 해설 박정자 |
| | 25~27일 | 국립무용단 **넥스트 스텝 II** | 달오름극장 | |
| | 20일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 하늘극장 | |
| **5월** | 2~18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어린이 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 | 하늘극장 | 작곡·음악감독 함현상 | 구성·연출 정종임<br>극본 이가현 | 안무 정현숙 |
| | 22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하늘극장 | 해설 박정자 |
| | 25일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 하늘극장 | |
| **6월** | 5~16일 | 국립창극단 **심청가** | 달오름극장 | 대본·연출 손진책 | 작창·도창 안숙선<br>음악감독 이태백 |
| | 11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내셔널&인터내셔널** | 롯데콘서트홀 | |
| | 22일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 하늘극장 | |
| | 26일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하늘극장 | 해설 박정자 |
| | 29~30일 | 국립무용단 **색동**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연출 정구호 |

국립무용단 명절기획시리즈

국립극장 | 국립무용단

2018
9.25
|
9.26

국립극장 | 하늘
전석 3만원

# 추석 · 만월



**예술감독**
김상덕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

# VIEW


**32**
**프리뷰**
공연예술박물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34**
**리뷰**
국립창극단 '흥보씨'

**36**
**예술가의 초상**
국립무용단 박혜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 즐기고, 체험하며 공연예술에 한 걸음 가까이

선 그어진 공간 속 박제된 것들로 가득한 박물관을 떠올렸다면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자.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며 공연예술을 한결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니. 박물관은 살아있다!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건너편에 위치한 공연예술박물관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2009년 12월에 개관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에선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역사적 흐름과 한 편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상설전시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연예술을 다채롭게 체험·향유할 수 있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와 연계해 2010년 선보인 '나만의 공연예술박물관 만들기'는 전시된 자료를 활용해 참가자의 개성대로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는 공연예술박물관의 한정된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찾아가는 공연예술박물관'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현재의 '공연꾸러미' 대여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했다. 당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경야독' 프로그램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2014년에는 교육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새롭게 꾸렸다. '공연예술전문가와 박물관 데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박물관이 적극 나선 결과다.

2010년 이래 꾸준히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여온 공연예술박물관은 오는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5~7세 유아부터 어린이·청소년까지 대상별 맞춤형으로 섬세하게 계획한 라인업을 만나보자. 대부분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재빠른 클릭은 필수!

글 **한빛·이수윤**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 도란도란 이야기 꾸러미

'도란도란 이야기 꾸러미'는 5~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공연예술박물관 관람과 구연동화 감상을 통해 공연예술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기에 안성맞춤! 전체 프로그램은 창작 판소리 '토끼와 거북이'를 감상한 뒤 북장단에 맞춰 사물과 동물을 표현해보는 신체놀이,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모자 만들기로 구성돼 있다. 유치원 대상 단체 프로그램(50분)과 가족 대상 프로그램(1시간 30분)으로 나뉘며, 참가비는 상이하다.

**운영 기간** 추후 홈페이지 공지
**대상** 5~7세 유아, 유치원 단체(평일)·가족 단체(주말)
**참가비** 무료(유치원)·5천 원(가족)
**참여 방법** 전화 접수(유치원)·국립극장 홈페이지 접수(가족)
**문의** 02-2280-5806·5804



### 오늘은 나의 무대-무대미술가 프로젝트

직업 세계에 눈을 뜨게 될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는다면 이 프로그램을 주목하자. 무대미술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실제 무대미술을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안내한다. 참가자 모두 무대미술가가 되어 모둠 구성원과 함께 무대장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공연 제작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작화에 사용되는 아크릴 물감·노끈·마스킹테이프 같은 재료를 이용해 슬라이드 벽면과 거울판을 제작하고 이를 상설무대에 세팅해 발표하는 순서로 이뤄져 있다.

**운영 기간** 2018년 11월 주말(예정)
**대상** 초등학교 4~6학년생
**참가비** 1만 원
**참여 방법** 국립극장 홈페이지 접수(선착순)
**문의** 02-2280-5806·5804



### 찾아가는 공연예술박물관 '공연꾸러미'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웠던 전국 각지의 선생님을 위해 공연예술박물관이 직접 나섰다. '공연꾸러미' 대여 프로그램은 전국에 소재한 어린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연 의상과 소품으로 구성된 '공연꾸러미'를 대여하는 사업이다. 공연꾸러미는 '수궁가' '장끼전' 두 종류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내용을 각색한 체험용 의상과 소품을 주제에 맞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어린이 도서관·지역 아동센터 등 기관과 유치원·초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라면 대여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업이나 학예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일간 대여를 진행한다.

**운영 기간** 2018년 10~12월(6회 운영, 회당 10일)
**대상** 전국 소재 어린이 기관(도서산간 지역 제외)
**대여비** 공연꾸러미 1개당 3만 원(왕복 배송료 포함)
**참여 방법** 국립극장 홈페이지 접수(선착순)
**문의** 02-2280-5806·5804



### 공연예술전문가와 박물관 데이트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공연예술박물관이 운영하고 있는 학생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 공연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공연 제작 과정과 공연예술 전문가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한 뒤 공연예술 관련 직무와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모둠별로 직업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2017년에는 무대기술(음향·조명·무대·기계·영상)과 무대미술(장치·소품·의상) 분야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하우스매니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에는 공연기획·무대미술 등 다양한 직군을 소개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 2018년 11월 중(4회 운영)
**대상** 중학교 예술 관련 동아리 및 단체
**참가비** 무료
**참여 방법** 진로체험 꿈길(www.ggoomgil.go.kr) 홈페이지 접수
**문의** 02-2280-5804·5806

국립창극단 **흥보씨**

# 대박과 쪽박, 텅텅박과 독박

새로운 장소에서 변화된 이야기를 풀어낸, '꾼'들의 만남.
우주적 기운으로 들썩이던 그 현장을 돌아보다.

**2018년 7월 13~22일 | 명동예술극장**



국립창극단 창극 '흥보씨'가 다시 무대에 올랐다. '변강쇠 점 찍고 옹녀'로 포복절도의 웃음과 통쾌함을 관객에게 안겨준 고선웅 연출가의 두 번째 창극이다. 국립창극단은 아힘 프라이어 연출의 '수궁가'(2012),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2014), 이소영 연출의 '적벽가'(2015), 고선웅 연출의 '흥보씨'(2017), 손진책 연출의 '심청가'(2018)까지 현재 기록으로 전하는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현대 창극으로 올렸다. 2012년 김성녀 예술감독 취임 이후 창극이 대중에게 부쩍 가깝고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 고선웅 연출은 '푸르른 날에'(2011),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2014), '변강쇠 점 찍고 옹녀'(2014), '홍도'(2015)에 이어 현재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창극단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창극시리즈의 첫 번째, '소녀가'를 연출한 이자람이 음악감독을 맡았다. 김성녀 예술감독이 자부하는 '꾼들의 만남'이다.

**대박과 쪽박, 흥보는 기가 막히고 놀보는 놀라 자빠진다**

대박과 쪽박, 대박 난 집과 쪽박 찬 집. 지금도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우스갯소리다. "대박 나세요!" 창업하는 사람에게, 공연을 새로 올리거나 영화를 개봉하는 사람들에게도 곧잘 하는 말이다. 흥보와 놀보의 대박과 쪽박은 현대판 로또에 가깝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극히 현실적인 욕망이기도 하다.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하기 때문이다.

"마담 옹", 옹녀의 파격에 이어 "미스터 흥보", 고선웅 연출의 흥보 이야기도 파격의 연속이다. 초연 당시 "너무 바뀐 창극 '흥보씨', 흥보가 기가 막혀"('노컷뉴스' 2017년 4월 9일 자)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 너무 과감하게 각색해서 원작의 흥보가 기가 막힐 정도라는 것이다. 고선웅의 '흥보씨'에는 외계인이 등장한다. 외계인은 마치 갓처럼 UFO 비행선을 머리에 썼다. 찔레가시꽃밭에서 주워온 흥보는 인생이 내내 가시밭길이더니 놀보 대신 매품 팔기 위해 십자가 모양 곤장을 짊어지며 "골로 가는 언덕을 넘겠구나" 너스레를 떤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명상을 통해 "비워야 하리 텅텅텅, 그때서야 울리리 텅텅텅"을 읊조리는 '텅텅교'를 창시한 사이비 교주와 같은 흥보는 십자가를 지고 골로 언덕을 넘는 모습을 시니컬하게 보여준다. 그야말로 "흥보가 기가 막히고" "놀랄 놀자" 놀람의 연속이다.

무대는 비어 있다. 병풍처럼 쪽이 나뉜 배경 막에는 '일월오봉도' 그림을 배경으로 박씨 물고 오는 제비도 보여주고, 외계인이 타고 오는 UFO 비행선 그림도 영상으로 보여준다. 민화처럼 색채를 단순화한 영상 병풍이다. '일월오봉도'에 해와 달이 내려와서 UFO 음악에 맞춰 흔들흔들 춤을 추기도 한다. 소품은 모두 부채로 대체했다. 부채를 활짝 펴서 등장인물을 소개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을 때는 쟁기가 되었다가, 흥보네 식구들이 놀보 집에서 쫓겨날 땐 이고지고 떠나는 짐이 되기도 한다. 가장 해학적인 장면인 줄줄이 딸린 흥보네 가족들 이야기는 장면이 끝날 때까지 모두 건들건들 춤을 추고 있어 흡사 꼭두각시놀음의 인형들처럼 보인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변강쇠 점 찍고 옹녀' '흥보씨'에 이르기까지 고선웅의 동양 고전 연출 방법론은 더더욱 확실하고



과감해지고 있다. 고전 판소리의 민중 해학이 현대 대중문화의 B급 상상력과 만나 전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우주적 기운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텅텅박과 독박, 언재무궁이나 더질더질**

그런데 초연의 아쉬움이 컸던 것일까. 고선웅 연출은 이번 재공연에서 2부 몇몇 장면을 대폭 수정했다. 고을 원님 동헌 장면에서 흥보와 놀보의 목에 칼을 들이밀던 무시무시한 망나니는 사라졌다. 놀보가 욕심부리며 혼자 다 먹은 박(죽)은 독이 든 '독박'이고, 석 달 열흘 동안 설사만 하다가 드디어 "비우니까 속이 편쿠나"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되어 형제와 화해하는 결말로 바뀌었다. 초연하던 지난해 4월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깊은 바닷속에서 세월호가 올라오던 때였다. '흥보씨'의 "우주의 기운", 고을 원님 동헌 장면에 나란히 형틀 의자에 앉은 흥보와 놀보에게 원님이 내뱉던 일성 "너희 둘은 국정을 농단한 대역죄를 지었다"는 실시간으로 관객과 공감을 나누는 화력이 센 말들이었다. 흥보와 놀보의 출생의 비밀과 "통일 대박"을 외치다 쪽박 차고 감옥에 들어간 누군가의 상황도 그저 평범한 대박과 쪽박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착하게 살면 누구 말마따나 우주도 감복한다"는 결말의 말은 단지 평범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강력한 풍자 효과를 가지는 패러디였다.

이번 공연에서 2부가 대폭 수정됐다. 고선웅은 작가로서 고민이 많았나 보다. 흥보를 때리던 "곤장도 너무 많이 때렸다" 반성하고, 놀보를 혼내는 "독박도 슬쩍 넣고" "좀 더 설득력 있게 상황을 순화"(프로그램북 연출의 글에서)시켰다고 설명이 구구절절하다. 결말은 순화되었다. 결론적으로 흥보에게는 '텅텅박'이 남고, 놀보에게는 '독박'만 남았다. 대박 신화도 없고, 쪽박 경고도 없다. 한 시대의 초상으로 남았을 뻔했던 흥보의 촌철살인 비수 하나를 잃는 순간이다. 대박과 쪽박 세상사에 대한 B급 상상력의 호쾌한 질타는 사라지고, 흥보와 놀보 개인의 수련과 종교적 판타지로 끝낸 텅텅 빈 결말만 남아 아쉽다. "언재무궁이나 더질더질"이다.

글 **김옥란** 연극평론가이자 드라마투르그. 연극을 만들고, 비평하고, 연구하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한국현대연극사 기술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박혜지

국립무용단

무대를 압도하는 단단한 춤,
'회오리'에서 선배들과 나란히 선
박혜지는 국립무용단의
슈퍼루키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말하는 '기본'과
그 안에 깊게 뿌리내린 '전통'은
그러한 춤을 출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춤을 추기 시작하면 크고 또렷한 눈망울이 더욱 반짝인다. 무대 위 스스로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자신을 보고 있는 관객을 잡아먹기라도 할 기세로. 인터뷰를 위해 사진 촬영에 나선 날에도 그랬다. 몸 선을 따라 유려하게 떨어지는 슈트를 입고 등장한 그녀는 순백의 배경지 앞에서 옷깃이 살결을 스칠 듯 말 듯 작게 움직였다. 화려한 동작이나 너른 춤사위는 없었다. 이따금씩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사진작가에 의해 포착된 모니터 속 여인은 춤이 아닌 몸으로 오롯이 자신을 입증하고 있었다.

무대를 압도하는 단단한 춤. 박혜지의 움직임을 보며 떠올린 감상이다. 수려한 마스크와 시공을 가르는 눈빛, 그리고 어깨에서 시작되는 두 팔의 강한 움직임은 뿌리로부터 끌어올리는 우리 춤이 가진 힘을 상기시킨다. 지금이야 국립무용단의 크고 작은 작품에서 얼굴을 비추고 있지만 박혜지가 정단원이 된 지는 꼭 4년밖에 되지 않는다. 2011년 인턴단원으로 입단해 첫 두 해 동안은 동기들과 매달 '정오의 춤' 무대를 꾸렸다. 그리고 공연으로만 보던 선배들을 실제로 마주한 날, 연예인을 만나기라도 한 듯 설레면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매년 시험을 치러야 했던 치열한 인턴 생활을 마치고 2014년 5월, 정단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국립무용단의 무용수로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건 그보다 앞선 때였다. 인턴단원으로 유례없이 신작 '회오리'(2014)에 주역으로 캐스팅됐다는 소식은 세간의 화제였다. 핀란드 안무가 테로 사리넨과 국립무용단이 협업한 '회오리'는 한국 춤사위와 안무가 특유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움직임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한 작품이다. 국립무용단 창단 이래 해외 안무가와 처음 추진한 프로젝트에서 까마득한 선배들과 함께 가장 앞줄에 선 박혜지는 이내 국립무용단의 슈퍼루키로 떠올랐다.

"해외 안무가는 처음인 데다 정단원·인턴단원 구분 없이 모두 워크숍에 참여하라고 해서 무척 기대됐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걸 배우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 그저 열심히 했죠. 그사이에 테로 사리넨은 무용수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체크하더라고요. 캐스팅이 나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인턴단원이 몇몇 포함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주역 캐스팅이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고요. 워크숍처럼 안무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정 부분에 제가 등장해야 한다고 안무가가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하다 보니 김미애 선생님, 이정윤 선생님, 최진욱 선생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너무 떨렸죠. 주눅 들기도, 한편으론 기대되기도 했어요. 안무가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분위기도 자연스럽고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해주셔서 작품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오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블랙과 화이트의 4인무, 선배 최진욱과 호흡을 맞춘 박혜지는 특유의 굳건한 표정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민하게 움직인다. 김미애와 이정윤의 블랙이 작품 전체의 기운을 감지하고 이끌어간다면, 최진욱과 박혜지의 화이트는 그에 비해 인간적인 춤사위를 선보인다. 리프팅과 파트너십이 많은 탓에 헐떡이면서도 두 사람은 무언가에 홀린 듯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춤을 이어나간다.

"첫 공연 무대에 올랐는데 해오름극장 그 큰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춤을 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작품에 누가 되선 안 되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공연을 마치고 나서 이제 끝인 줄 알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계속 재공연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제게는 애증이 담긴 작품이죠."

**기본에 뿌리내린 단단한 춤**

시작은 발레였다. 안짱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부모님은 무용학원을 권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발레, 예쁜 동작과 예쁜 의상에 반해 금세 흥미를 붙였다. 하지만 골반이 닫혀 있어 턴아웃turn-out에 그리 좋은 신체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한국무용으로 전향하게 됐다. 그러나 장르를 구별하지 않고 춤추는 건 뭐든 좋아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녀는 학창 시절을 회고한다.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눈앞에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해온 그녀의 성장기에 국립무용단이란 존재가 서서히 다가왔다. "혜지야. 너는 커서 꼭 국립무용단 들어가라." 주변에선 늘 그렇게 말했다. 국립무용단 공연이라면 꼬박꼬박 챙겨 봤고, 자연스레 관심도 높아졌다. 졸업 후 목표는 어느새 국립무용단 입단이 돼 있었다. 박혜지는 금세 그 목표를 이루고, 이제는 부수석 단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립극장이 시즌제를 도입한 이래 국립무용단은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개발하고 있다. 장르의 경계 밖에 있는 안무가나 연출가를 끌어오는 일도 서슴지 않으며, 레퍼토리의 스펙트럼은 점차 다채로워지고 있다. 박혜지는 지난 1년 동안 '리진'의 도화 역을 시작으로 '춘상' '시간의 나이' '가무악칠채' '맨 메이드' '향연'으로 이어지는 숨 가쁜 여정을 소화했다. 그사이 2월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무대에 올라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로 다른 질감의 춤, 무대를 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몇 번이나 탈바꿈시켜야 했을까.

"무용수라면 안무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 하죠. 굳이 '한국(무용) 무용수'라는 틀에 갇히기보다는 '무용수'라고 불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워낙 광범위한 작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셉트와 움직임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무용수 아닐까요."

그렇게 무용수들은 자신의 색깔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새로운 무대에 올라야 한다. 전통복식을 갖춘 채 한 손엔 꽹과리를 들고 나설 때, 새빨간 슈트를 차려입고 머리를 포니테일로 질끈 묶고 나설 때… 때마다 심정이 같다면 오히려 이상할 터다.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한국무용 하는 사람인데 현대무용을 하면 현대무용 전공자를 따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들은 내 춤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장르를 허무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춤이 맞다, 저 춤이 맞다,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공연할 때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움직임에만 집중해요. 동작, 콘셉트, 감정을 차근차근 잘 수행해내면 그 결과가 나의 몸으로, 춤으로 관객에게 전달될 것이라 믿거든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연습실에서 지켜본 박혜지를 그저 춤 잘 추는 무용수로 정의하고 싶진 않다. 어떤 색을 칠하든 아름답게 발현할 준비를 마친 하얀 도화지. 새로운 예술가와 창작 작업을 시작할 때, 그녀는 누구보다 좋은 캔버스가 된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볼 때 '교과서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에 국한하기보다는 이것도, 저것도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직업무용단에서 워낙 다양한 작품을 하다 보니까 기본기가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발레를 해서인지, 혹은 제가 고지식한 성격이라 그런지 몰라도 내 것을 정확하게 해내야 한다는 일종의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것을 정직하게 해낼 때 그 안에서 더욱 다양한 색깔을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그 기본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정답은 없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기준은 있어요. 저만의 방식, 뚝심이랄까요."

동시대성을 따르는 한국춤과 한국성을 좇는 컨템퍼러리 댄스는 어떻게 다른가. 그 가운데 국립무용단은 어떤 춤을 추구하고 있는가. 변화하는 한국춤 현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젊은 무용수들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국립무용단이 한국춤을 뿌리에 두고 발전해온 창작춤을 하는 것과, 기존에 현대무용 하는 무용가들이 한국적인 것을 찾는 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적인 동작을 한들 저희가 갖고 있는 정서를 100퍼센트 공유할 수 없잖아요. 시작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도달하는 지점도 다를 거라 생각해요. 무엇보다 전통이란 빠른 시일 내에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가에 이른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갈고닦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수련한 끝에 나오는 것이 한국춤인데, 소재만 갖고 와서 동작으로 엮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요."

박혜지가 말하는 '기본', 그 안에 깊게 뿌리내린 전통. 그녀가 그토록 단단한 춤을 출 수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관객에게 그녀는 어떤 무용수이고 싶을까.

"공연을 보고 나면 전체적인 연출이나 안무가 좋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은데, 저는 '어느 누가 눈에 들어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좋더라고요. 관객이 무용수를 눈에 담아간다는 건, 기억해주겠다는 거니까요. 무용수로서 그보다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극장을 나설 때 당신의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는 한 마디만 들어도 무용수로서 성공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무대에 서고 춤을 추는 한 언제까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글 **김태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무용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월간 '객석'과 서울문화재단·국립극장에서 잡지를 만들었으며,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제12회 젊은 비평가상을 수상했다.
사진 **전강인**

국립국악관현악단
MIDDAY CONCERT
국악 브런치 콘서트

# 정오의 음악회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

연주 **국립국악관현악단** 해설 **박정자**

2018.9.5 / 10.17 / 11.7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극장 하늘

관람료 2만원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 GUIDE


**42**
국립극장 이용 안내

**44**
8월의 기대작

# 국립극장 이용 안내

## 티켓 예매 및 회원가입 안내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ntok.go.kr

예매 수수료 없음, 엔톡NTOK 회원 가입 시 최고 20% 할인율 제공

**전화 및 현장 예매**

콜센터 02-2280-4114(오전 9시~오후 6시, 연중무휴)

하늘극장 옆 고객지원센터 방문

**할인 안내**

| 종류 | 할인율 | | 비고 |
|---|---|---|---|
| **엔톡NTOK 회원** | 최고 20% | 1인 4매 | 국립극장 홈페이지 회원 |
| **문화융성카드** | | 제한 없음 | 문화융성카드 결제 시 할인 |
| **임산부** | 20% | 본인 | 산모수첩 소지자 |
| **다둥이 카드** | | | 다둥이카드 소지자 |
| **문화패스(청소년 등)** | 30% | 본인 | 8세 이상 24세 이하, 대학생 |
| **예술인패스** | | | 예술인패스 소지자 |
| **경로** | 50% | 본인 | 65세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 | |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 **차상위계층** | | | 차상위계층 대상자 |
| **장애유공자** | | 1인 2매 | 복지카드 소지자 |

*공연별 할인율은 주최 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수령 시 증빙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극장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대중교통**

| | |
|---|---|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 하차 후 도보·버스 이용 |
|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 하차 후 버스 이용 |
|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 하차 후 버스 이용 |
| **간선버스 420** |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
| **남산순환버스 02·03·05** |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

**무료 셔틀버스**

**공연 전**

**타는 곳**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남산순환버스 정류장 앞

**운행구간** 3호선 동대입구역 → 국립극장

**운행시간** 공연 1시간 전부터 20분 전까지 10~15분 간격으로 운행

**공연 후**

**타는 곳** 해오름극장 앞 문화광장

**운행구간** 국립극장 → 3호선 동대입구역 →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운행시간** 공연 종료 직후

**주차 안내**

국립극장에는 380여 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연 관람 시 5시간 미만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요금 안내**

| | | |
|---|---|---|
| **공연 관람 시** | 사전 정산(극장 내 정산소·정산기 이용) | 3천 원 |
| | 사후 정산(출차 시 티켓 제시) | 4천 원 |
| **일반 이용** | 최초 30분 1천 원 이후 10분당 500원 | |

*국립극장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로 2018년 9월 20일부터 국립극장 내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공연예술박물관은 2009년 12월 23일에 개관한 곳으로 약 22만 점의 귀중한 공연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설립된 195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극·무용·창극·오페라·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실과 공연예술자료실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관람 안내**

**관람시간**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5시 30분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관람료** 무료
**문의** 02-2280-5804·5806

*박물관 내부 프로그램 진행 시 사전 예약하지 않은 단체(5인 이상)는 전시실 관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체관람 안내**

관람 질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단체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학교 및 기관 관람 인원이 10인 이상~30인 미만일 경우 관람일 일주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합니다. 단체 30인 이상일 경우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해설 안내**

전문 전시해설사가 상설전시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 1인 이상~30인 이하(초등 고학년 이상)

*전시해설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시해설 예약은 단체관람 예약과 별도입니다.
*기획전시실은 공사로 인해 2019년 10월까지 휴실합니다.

**공연예술자료실**

**자료실 I** 공연 영상·음향·사진·대본·프로그램 등
**자료실 II** 연극·창극·무용·음악 등 도서자료
**운영** 오전 9시~오후 6시(오후 12시~1시 제외)
**위치** 공연예술박물관 1층(자료실 I), 지하1층(자료실 II)
**휴관**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문의** 02-2280-5834, 4025~6

# 8월의 기대작 클래식 음악




## KBS교향악단 제733회 정기연주회

지휘자 정명훈이 오랜만에 KBS교향악단의 지휘봉을 잡는다. 이번 공연은 독일 정통 레퍼토리로 채웠다. 1부는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안 라흘린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빈 음악원을 졸업한 라흘린은 198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로비전 콩쿠르에서 '올해의 젊은 음악가상'을 받았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넘나드는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현악기 본연의 깊은 음색을 끌어내는 데 탁월한 소질이 있다. 베토벤이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은 연주의 기교보다는 악기의 따뜻한 음색이 돋보인다. 그렇기에 감성에 충실한 라흘린의 협연이 더욱 기대된다. 2부에선 브람스 교향곡 1번이 연주된다. 베토벤이 이룩한 낭만주의 음악은 브람스에게 계승됐다. 베토벤의 음악을 지지했던 브람스는 20여 년의 시간을 지나 교향곡 1번을 완성했다. 비극적 감성의 1악장이 4악장에 이르러 승리로 변용되는 작품의 구조는 고뇌를 환희로 승화한 베토벤의 인생과 맞닿아 있다.

**날짜·장소** 8월 23~24일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KBS교향악단 02-6099-7400




## 한·중수교 26주년 기념음악회

한국과 중국의 수교 26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무대의 주인공은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장쭤Zhang Zuo와 에스더 유Esther Yoo. 중국 출신의 피아니스트 장쭤는 기나 바카우어 피아노 콩쿠르 1위, 크라이네프 피아노 콩쿠르 1위, 201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해외 무대에서 입지를 다졌다.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입상(2010년)했으며, 현재 로열 필하모닉의 상주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두 연주자는 BBC 뉴 제너레이션 아티스트로 만나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첼리스트 나레크 하크나자리안과 함께 Z.E.N. 트리오를 결성해 지난해 데뷔 음반을 발매했으며, 다수의 듀오 공연으로 호흡을 탄탄하게 맞췄다. 이번 공연은 대중에게 친숙한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중 러시아 춤, 엘가 '사랑의 인사' 등 소품곡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날짜·장소** 8월 23일 | 금호아트홀
**문의** 금호아트홀 02-6303-1977



## 서울시향 2018 실내악 시리즈IV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시즌 프로그램에 실내악 시리즈를 배치, 음악적 가치관이 통하는 연주자끼리 자유롭게 멤버를 구성해 실내악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경우에도 단원들이 주도적으로 구성한 40여 개의 실내악단이 있는데, 이들의 공연을 보면 연주자 개개인의 기량에 새삼 놀라게 된다. 서울시향 단원들 역시 실내악 공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다. 그 덕분에 서울시향의 실내악 시리즈를 향한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러시아 작곡가들'이라는 부제를 단 이번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주연경·임가진·김덕우, 비올리스트 강윤지가 참여해 러시아의 우수를 담은 실내악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 전반부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함께하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3중주 '엘레지' 1번으로 시작해 니콜라이 메트너 피아노 5중주로 이어진다. 마지막은 차이콥스키 현악 6중주 '플로렌스의 추억'으로 장식한다.

**날짜·장소** 8월 24일 | 세종체임버홀
**문의**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 연극 **임영준 햄릿**

한국에서 연극을 하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햄릿'과 만나 한 편의 공연으로 완성됐다. 지난해 사계절 연극제에서 초연한 '임영준 햄릿'은 배우 임영준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라 작품을 이끈다. 연극 '손님들'로 화제를 모은 연출가 김정과 '2017 애국가'로 깊은 인상을 남긴 연출가 하수민이 공동 창작한 작품이다. 이들은 연극에서 배우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우에 의한, 배우를 위한, 배우가 중심이 되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던 이들은 데뷔 10주년을 맞은 배우 임영준을 캐스팅했다. 연출가 김정·하수민, 조연출 박정호, 배우 임영준은 '연극인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새롭게 구성했다. '햄릿'의 명대사는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메시지로 치환된다. 이번 공연은 초연과 동일한 구성을 취하지만 한층 발전된 무대를 기대해도 좋다.

**날짜·장소** 8월 3~11일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문의**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 연극 **비평가**

연극 '비평가'는 스페인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의 작품이다. 마요르가는 '다윈의 거북이' '맨 끝줄 소년' 등으로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비평가'는 지난해 이영석 연출과 극단 신작로에 의해 국내 초연됐다. 2인극 형식을 취하는 동시에 극중극 방식을 집어넣었다. 성공을 거둔 작가가 비평가를 찾아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비평가는 일관되게 냉정한 평가를 유지하고, 작가는 비평가에게 인정받고자 날카롭게 대립한다. 희곡 자체와 극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에 대한 상이한 견해로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진다. 지난 공연이 두 인물의 내면을 탐색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재공연은 인물에 대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작품의 주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배우 백현주와 김신록이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성공한 극작가, 원로 비평가를 묘사할 때 그들이 남성일 것이라는 원작의 틀을 깨고자 남성 역할을 여성 배우가 연기하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날짜·장소** 8월 17일~9월 1일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문의** K아트플래닛 02-742-7563




## 와이즈발레단 **플레이Play**

와이즈발레단의 'W시리즈'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안무가와 협업해 창작 발레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번 공연은 세 명의 안무가가 하나의 키워드를 각자의 색깔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주제어는 '놀이play'다. 아이들의 세상은 놀이로 가득하다. 지각하는 모든 것이 놀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놀이란 무엇일까. 안무가 김용걸·김성한·주재만이 자신만의 대답을 내놓았다. 김용걸이 안무한 'Les Mouvement 2'는 발레의 수많은 동작을 확장시켜 표현과 영역의 가능성을 확대한다. 이번 작품은 2014년 발표한 'Les Mouvement'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김성한의 'The Game'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게임에 시달리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했다. 주재만의 'Intermezzo'는 브람스의 음악에 기대 흘러가는 작품이다. 브람스의 소품곡에 담긴 슬픔의 감정을 강렬한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날짜·장소** 8월 17~18일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문의** 마포아트센터 02-3274-8600

# 국악·뮤지컬



## 소리극 **앵비 12잡가 프로젝트-열두 개의 가歌**

2012년에 창단한 경기소리그룹 앵비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미리·김미림·최주연·성슬기로 구성된 단체다. 그동안 앵비는 경기소리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동시대의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고민해 왔다. '열두 개의 가歌'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불리던 12개의 잡가를 소개하는 무대다. 잡가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조선 후기 많이 불리던 노래 장르 중 하나다. 자칫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잡가의 가창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공연을 입체적으로 구상했다. 총 4부로 구성된 공연은 불세출의 연주가 시작을 알리면 가창자가 한 명씩 입장해 노래를 부른다. 소리꾼이 모두 무대에 오르면 이들의 예술적 기교를 비교해가며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잡가의 가사와 뜻을 풀이하는 토크 프로그램이 공연 사이에 배치돼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날짜·장소** 8월 24~25일 |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문의** 서울남산국악당 02-2261-0500



우면산 별밤축제 중 악단광칠

## 국립국악원 **우면산 별밤축제**

시원한 여름밤을 즐기고 싶다면 주목하자. 길게 뻗은 우면산 자락 아래서 신명 나는 우리 음악 축제가 벌어진다. 2014년 처음 개최된 '우면산 별밤축제'는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지는 무료 공연이다. 올해 축제는 지난 6월 개막해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열리고 있다. 창작국악과 연희 공연이 번갈아가며 관객을 맞이한다. 8월에는 국악그룹 타고 '피스 나이트'(4일), 악단광칠 '악단광칠 수상한 콘서트'(11일), 연희집단 The 광대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18일), 고영열밴드 '판소리&민요 렉처콘서트'(25일)가 준비돼 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9월 1일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연희공방 음마갱깽이가 '꼭두각시 인형과 함께 듣는 국악관현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부터 공연장에 음식물과 음료 반입이 가능하니 가족·연인과 함께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더불어 즐겨도 좋겠다. '우면산 별밤축제'에서 국악의 멋과 맛을 동시에 즐겨보자.

**날짜·장소** ~9월 1일 | 국립국악원 연희마당
**문의** 국립국악원 02-580-3300



## 뮤지컬 **바넘-위대한 쇼맨**

뮤지컬의 원작은 배우 휴 잭맨이 주연을 맡은 영화 '위대한 쇼맨'이다. 이 작품은 실존 인물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의 삶을 소재로 한다.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는 미국의 서커스단 링링 브라더스 앤드 바넘&베일리 서커스를 설립했고, 서커스를 지상 최대의 엔터테인먼트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뮤지컬은 19세기 중반 미국을 배경으로 한다. 서커스를 소재로 한 박물관을 운영하던 바넘은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자와 가장 작은 남자를 소재로 쇼를 만들어 선보이고,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와 함께 투어 공연을 하며 큰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흥행 가도를 달리던 그는 아내를 위한 삶을 살고자 돌연 은퇴를 선언한다.
뮤지컬 '바넘-위대한 쇼맨'은 서커스를 극중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중을 즐겁게 만드는 쇼맨 바넘 역은 유준상과 박건형·김준현이 맡고, 남편의 꿈을 지지해주는 채어리 바넘 역에는 김소향·정재은이 캐스팅됐다.

**날짜·장소** 8월 7일~10월 28일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클립서비스 1577-3363


Buddha(1999) ©2017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 니키 드 생 팔 전 **마스다 컬렉션**

프랑스에서 태어난 니키 드 생 팔은 미국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가부장적 행동으로 지독한 고통을 겪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미술 치료를 시작했고 신경쇠약을 극복한 후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걸었다. 여성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고발한 '사격회화', 풍만한 체형의 여성을 모델로 한 '나나' 연작 등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20여 년의 시간을 들여 이탈리아에 타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몰두하기도 했다. 이 조각공원은 여성의 자궁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나오는 듯한 형태를 띤다. 니키 드 생 팔은 2002년 사망할 때까지 작품 활동에 매진하며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이번 전시는 요코 시즈에 마스다의 소장품 127점으로 꾸려졌다. '개인적 상처와 치유' '만남과 예술' '대중을 위로하는 상징'이란 세 가지 주제로 니키 드 생 팔의 작품을 구분해 소개한다.

**날짜·장소** ~9월 25일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예술의전당 02-580-1300


©글린트

## 사카모토 류이치 특별전 **Life, Life**

사카모토 류이치의 삶을 살펴보는 전시가 열린다. 사카모토 류이치는 그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왔다. 그는 40년 전 전자음악그룹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를 결성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마지막 황제' '레버넌트' '남한산성'에 이르는 수많은 영화에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진보적인 예술관을 가진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음악을 제시하고자 분주히 움직였다. 백남준·알바 노토 등 전위적인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틀었고, 오페라 'Life'를 선보이기도 했다. 2014년 후두암 판정을 받아 한동안 활동이 뜸했으나 강인한 정신력으로 투병 생활을 한 끝에, 2017년 새 음반 '에이싱크async'를 발표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발표한 '에이싱크'는 물론, 그간 선보인 다양한 협업 작품을 망라했다. 일본의 미디어 아티스트 다카타니 시로, 태국의 영화감독 아피찻뽕 위라세타쿤, 한국의 백남준 등과 함께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날짜·장소** ~10월 14일 | 피크닉piknic
**문의** 피크닉 02-6245-6372


1975년 에저또창고극장의 모습(방태수 소장)

##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 전시 **이 연극의 제목은 없읍니다**

전시는 삼일로창고극장의 재개관을 기념하며 극단 에저또의 활동을 조명한다. 에저또는 1969년 창단한 팬터마임 전문 극단으로, 당시 국내에 시도되지 않은 실험성 짙은 연극을 소개했다. 이들이 표현 수단으로 팬터마임을 선택한 이유는 언어 중심적인 연극에서 탈피하고 난무하는 언어 속에 감춰진 본질을 찾기 위해서다. 에저또는 창단 이후 명동 일대에만 다섯 개의 소극장을 열었다. 1975년에는 단원들이 힘을 모아 가정집을 개조해 에저또창고극장을 개관했다. 이것이 삼일로창고극장의 시작이다. 전시 제목인 '이 연극의 제목은 없읍니다'는 1969년 에저또 소극장에서 처음 열린 공연의 제목이다. 전시는 에저또의 초기 활동을 연대순으로 소개한다. 대본·포스터·티켓 등 자료와 에저또 연보를 통해 한국 연극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당시의 공연법과 희곡 검열, 소극장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도 만나볼 수 있다.

**날짜·장소** ~9월 22일 | 삼일로창고극장 갤러리
**문의** 삼일로창고극장 02-3789-9635

글 **장혜선** 바른 시선으로 무대를 영원히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글을 쓰고 있다.

## COMING SOON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고객 편의와 무대 기능 향상을 위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국립극장의 달오름극장·하늘극장·별오름극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국립극장의 일부 기획공연은
예술의전당·LG아트센터·명동예술극장 등 각지의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새 단장을 마친 해오름극장을 기대해주세요.**



# MIX


**50**
**세계무대**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유럽 3개국 투어

**54**
**시즌인문학**
본질을 탐구하는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

**58**
**우리 시대의 작곡가**
황병기(1936~2018)

**62**
**예술서적**
이내옥 '안목의 성장'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유럽 3개국 투어

# 고대 그리스, 케이팝을 만나다

초연 당시 한국 창극사에 기록될 소중한 수작으로 평가받은 '트로이의 여인들'이 유럽 무대에 올랐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유럽 관객은 한恨을 노래하는 우리 소리를 어떻게 느꼈을까.

국립창극단은 지난 6월 한 달간 영국 런던·네덜란드 암스테르담·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저명한 페스티벌의 초청을 받아 대표 레퍼토리 '트로이의 여인들'을 공연했다. 국립극장과 싱가포르예술축제가 공동 제작한 '트로이의 여인들'은 2016년 11월 국내 초연 이후 2017년 9월 싱가포르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영국·네덜란드·오스트리아 모두 이제껏 창극이 공연된 적 없기에 국립창극단이 그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6월 2·3일 양일간 '트로이의 여인들'은 영국 런던국제연극제London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를 장식했다. 올해 4월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 사우스뱅크 센터 퀸 엘리자베스 홀 무대에서였다.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연예술축제인 홀란트 페스티벌Holland Festival에 참여해 뮈지크헤바우 흐로터 잘(메인홀)에서 공연했다. 투어의 종착지인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한 뒤에는 16일부터 18일까지 테아터 안 데어 빈에서 빈 페스티벌Wiener Festwochen 무대를 장식했다.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에 게재된 리뷰를 통해 창극에 쏟아진 유럽 관객의 반응을 살펴보자.(편집자 주)

빈 페스티벌 마지막 주간에는 다시 고대 그리스비극으로 되돌아간다. 한국 전통 창극 형식으로 각색된 고대 그리스



01

비극 '트로이의 여인들'이다. 고대 그리스와 케이팝K-Pop 사운드 사이에서 일어난 음악이 빈에 거대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싱가포르 출신 연출가 옹켕센이 '트로이의 여인들'에서 주요하게 다룬 두 개의 감정은 '비애'와 '분노'다. 무대는 미니멀리즘과 고요가 지배한다. 흰옷을 차려입은 배우들은 손에 쥔 빨간 실뭉치를 천천히 풀고 있다. 그 앞에는 왕비 헤큐바(김금미)가 미동도 없이 바닥에 누워 있다.

하지만 곧 헤큐바의 첫 번째 소리와 함께 트로이의 노래로 이루어진 두 시간의 여정이 시작된다. 연출가 옹켕센은 그리스에 승리를 가져다 준 '트로이의 목마' 책략 이후 트로이의 여성들이 맞게 되는 운명을 소재로 한 에우리피데스의 '트로이의 여인들'을 작품의 토대로 삼았다. 이 작품은 그간 다양하게 각색됐다. 그중에서도 장 폴 사르트르는 전쟁에 대한 비판을 담아 작품을 재해석하고 현대로 가져왔다. 옹켕센은 이러한 사르트르의 작품을 사용해 한국의 전통 오페라, 즉 창극에 적합한 형태로 연출했다.

### 소리 높여 외치는 트로이 여인들의 운명

감정을 뚫고 지나가는, 거의 쉰 듯한 김금미의 목소리는 관객이 트로이의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게 한다. 10년간의 전쟁 탓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헤큐바는 이제 여인들, 딸 카산드라(이소연), 며느리 안드로마케(김지숙)와 함께 전쟁의 전리품으로 넘겨지길 앞두고 있다.

한국 창극이 기반하고 있는 전통 판소리와 마찬가지로, 각 여성배우는 북장단에 맞춰 독창을 한다. 옹켕센의 연출에서 북은 공연의 상당 부분에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오케스트라 피트에 배치된 한국의 전통 악기들이 유럽 무대와는 상당히 다른 음향을 만들어낸다. 케이팝 음악은 8인으로 구성된 코러스가 노래할 때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작곡가 정재일의 작품이다.

정신이 맑아질 정도로 하얀 무대에서 시작해 원소들을 하나씩 투사함으로써 관객을 점점 극으로 끌어들인다. 물이 한 번, 돌이 한 번씩 투사된다. 카산드라가 등장하면서 무대 배경에선 화염이 일어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옹켕센의 작품에선 조명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명은 단지 무대 위에 머물지 않고 객석에도 비친다. 게다가 몇몇 배우가 객석에 있는 문을 통해 출입하기 때문에 종종 객석의 조명도 눈이 부시게 밝아진다.

### 유럽과 한국이 공유하는 것

이어지는 여정에서 한국의 창극과 그리스의 고대 비극은

01
6월 16일 공연이 열린
테아터 안 데어 빈 로비의 모습




02

02
공연장 밖 빈 페스티벌 '트로이의 여인들'을 알리는 포스터

별반 다르지 않았다. 흰옷은 원전인 그리스비극과 아시아의 전통을 잇는 시각적 가교 역할을 한다. 관객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음량의 비가悲歌는 연민을 통한 영혼의 정화라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역할을 수행한다.

남성 배우가 연기한 헬레네(김준수)가 등장할 즈음, 옹켄센은 에우리피데스의 원전에 부분적으로 강력한 키치를 삽입해 동시대적 특색을 제시한다. 피아노 반주와 함께 헬레네는 메넬라우스(최호성)의 심장을 향해 노래하고, 이 장면에서 감정적인 절정에 다다른다.

옹켄센은 작품 속에서 헬레네를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로 표현했다. 그녀는 그리스인 사이에서도, 트로이 여성들 사이에서도 추방당한다. 연출가는 에우리피데스의 원작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운명에 강렬하게 천착함으로써 헬레네를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모순을 젠더 관점에서 바라봤다.

## 트로이는 아시아에 있다

'트로이의 여인들' 각색본에서 사르트르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트로이와 유럽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 그리스비극을 당시 베트남전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포장했다. 옹켄센은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을 통해 고대 그리스를 유럽의 의미적 주권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면서도 사르트르가 남긴 전쟁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침해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전쟁 속 살아남은 여성들의 투쟁은 2500여 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시사성을 지니고 있다.

## 자막 없이도 강렬한

무엇보다도 '트로이의 여인들'은 슬픔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든다. 옹켄센은 여성들의 소리를 작품의 중심에 두었고, 배우들도 트로이 여성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전달함으로써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두 시간가량의 공연이 끝난 후 배우들은 물론 관객도 모두 탈진했다. 무대로부터 시작된 힘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싱가포르 출신의 연출가 옹켄센은 자신이 만든 강렬한 버전의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로 관객에게 다가가는 데 성공했다. 국립창극단은 오스트리아 빈 초연 공연에서 격렬한 기립박수 세례를 받았다. 공연에 독일어 자막이 삽입되기는 했지만, 여성들의 운명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전달한 나머지 자막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다.

글 **플로리안 보크**Florian Bock
번역 **황연수** | 사진 **박용우**

**원문** 오스트리아 국영방송 ORF, 2018년 6월 17일 자, „Trojan Women": Antike trifft K-Pop

**본질을 탐구하는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

# 소리의 아름다움을 확장하다

영화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는 다양한 작업으로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다. 그는 일상적인 '소리'와 음악에 대한 생각을 세공해 앨범으로 발표하고, 설치 작업 등 다양한 실험으로 관객과 만난다.





인터넷 시대가 되고 나서,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전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이점도 있지만, 몰라도 될 일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것은 새로운 골칫거리다. 10대 때부터 세계의 대중음악을 들으며 자라 이제 50대에 접어든 한 사람의 음악 팬에게 최근 몇 년의 기억은 존경하는 뮤지션들의 부고로 빼곡했다. 아마 앞으로 슬픈 소식을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의 팬으로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것일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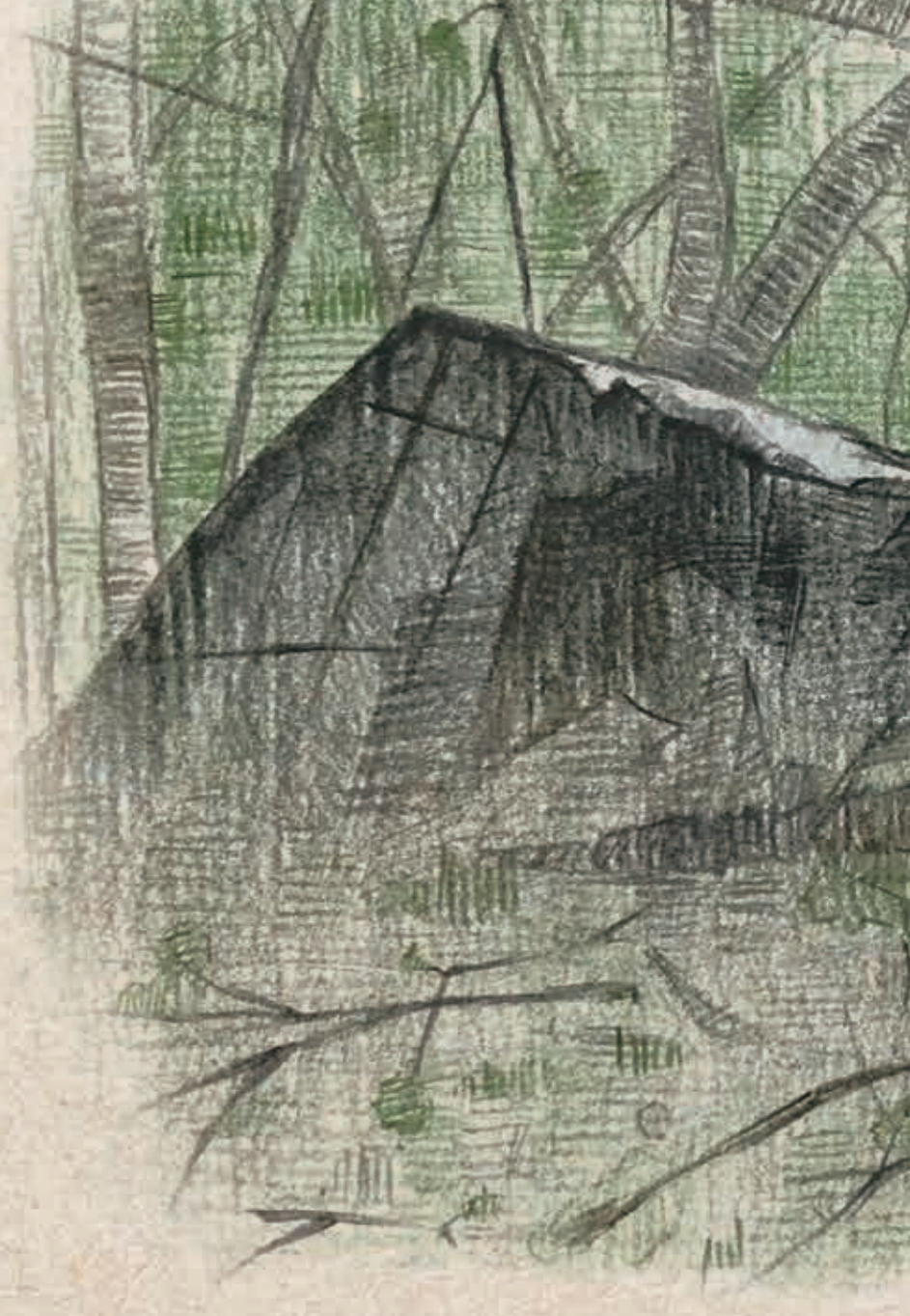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부고도 걱정거리지만, 누군가의 사고나 투병 소식도 끊이지 않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걱정스러웠던 일 중 하나는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의 투병 소식이었다. 2014년 인두암 발병 사실을 공표하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활동을 중단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를 걱정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다행히도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단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완치에 가까운 상태로 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 삶을 되찾고 다시 나아가다

2015년 야마다 요지 감독의 영화 '어머니와 살면'의 음악을 맡으며 활동을 재개한 그는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Alejandro González Iñárritu 감독의 '레버넌트-죽음에서 돌아온 자'(2015),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분노'(2016)에 이어 2017년에는 한국 영화 '남한산성'의 음악을 담당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2017년 초에는 8년 만의 신작 오리지널 스튜디오 앨범 '에이싱크async'도 발표했다. 이 앨범 발표 이후 일부 수록곡은, 올해 2월에 작고 소식으로 팬들을 안타깝게 한 요한 요한슨(그 역시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 '시카리오-암살자들의 도시' '컨택트Arrival' 등의 음악을 만든 영화음악가이기도 했다)을 비롯해 평소 사카모토와 교류가 깊었던 알바노토, 크리스티안 페네즈, 코넬리우스 등의 아티스트가 재해석해 '리모델'하는 프로젝트로 이어졌으며, 앨범 '에이싱크-리모델스ASYNC-REMODELS'와 몇 곡의 싱글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예전 못지않은 활동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반갑기 그지없지만, 올해 들어 한국의 사카모토 류이치 팬들에게는 몇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새 소식은 모두 2017년에 발매된 음반 '에이싱크'와 관련돼 있다. 먼저 앨범의 수록곡들을, 미디어 아티스트 다카타니 시로와 함께 재구성해 만든 설치 작품을 볼 수 있는 서울의 전시회 소식이 하나이고, 최근 만들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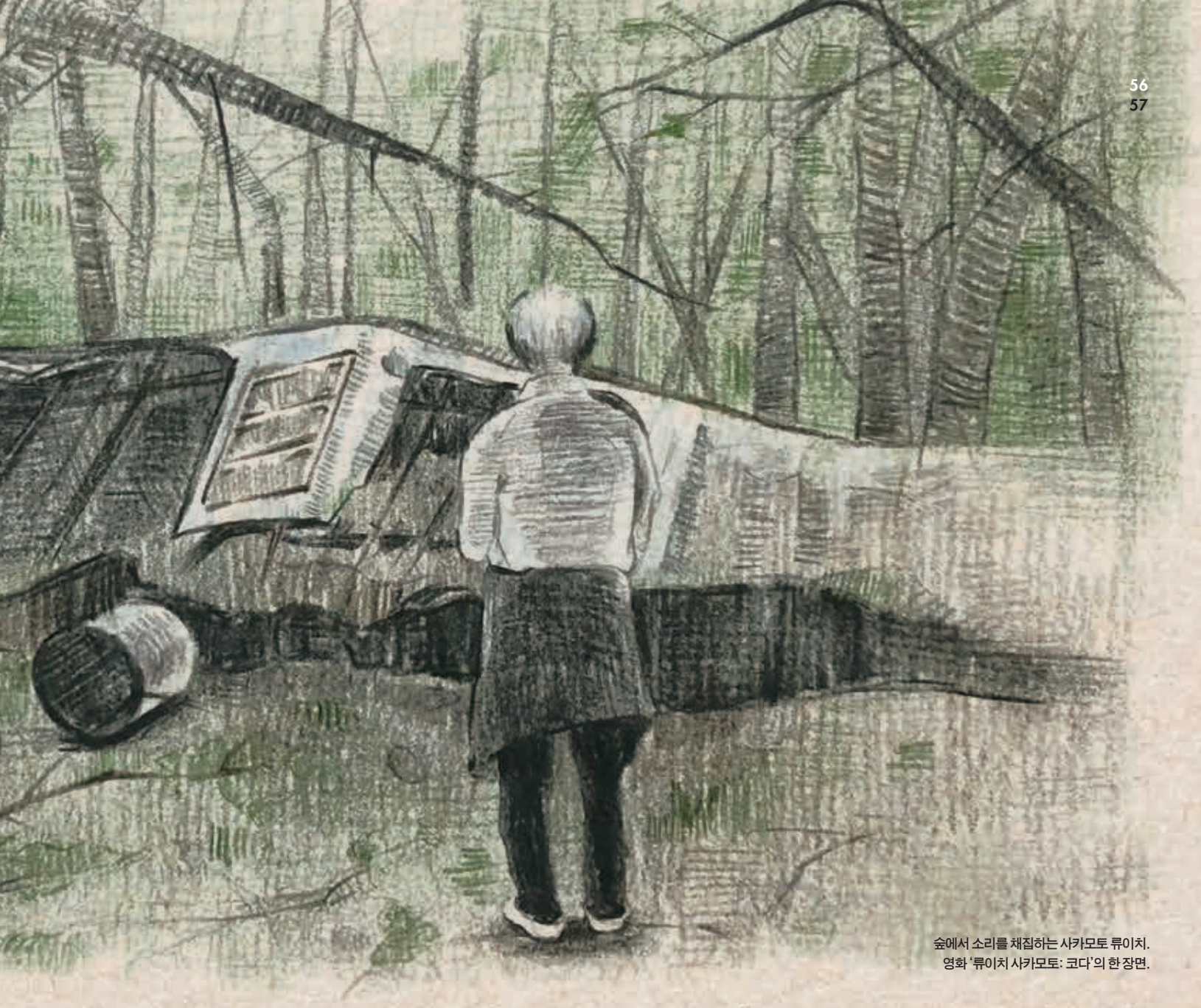
사카모토 류이치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두 편이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다른 하나다.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중 하나는 2012년부터 5년에 걸친 밀착 취재를 통해 그의 활동과 작업 풍경 등을 섬세하게 담아낸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Coda'(2017)다. 스티븐 노무라 시블이 감독한 이 영화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반원전 시위, 그리고 반핵 운동과 관련해 전면에서 발언하던 사카모토의 활동을 시작으로 그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다. 투병과 회복기를 거치며 앨범 '에이싱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흥미로운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다른 한 편은 '에이싱크' 앨범의 발매를 기념해 2017년 4월 뉴욕 맨해튼의 파크 애비뉴 아모리Park Avenue Armory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기록한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에이싱크async'다. 이 콘서트는 2017년 4월 25·26일 양일간 각각 100명의 관객만을 초대한 특별한 공연이었는데, 당시 사카모토를 동행 취재하던 시블 감독이 이 공연의 영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 작품은 지난 7월에 열린 '2018 KT&G 상상마당 음악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국내에 정식 소개되었다. 두 영화 모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특별 상영 등을 통해 국내 관객과 만나고 있다.

### 세상의 '소리'를 '가장 잘' 들려주는 실험

2018년 사카모토 류이치 관련 이벤트가 풍년을 이루고 있다. 그것의 견인차 역할은 앞서 언급한 전시회 'Ryuichi Sakamoto: Life, Life'가 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부터 남산 기슭 남창동의 전시 공간 피크닉piknic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를 앞두고 준비 기간이던 5월 중에 사카모토 류이치가 내한, 서울에 머물면서 전시 주최 측이 마련한 아티스트 토크와 미니 연주회, 영화 '코다'의 마스터클래스, 각종 매체의 취재 등으로 오랜만에 한국 팬들을 바쁘게 만들었다. 이 전시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앨범 '에이싱크'로 돌아가야겠다. 앨범 발매 직후인 2017년 4월 4일부터 두 달간 도쿄의 와타리움Watari-um 미술관에서는 '사카모토 류이치 설치음악전 에이싱크async'가 개최되었다. '양질의 환경에서 음악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이 작업은, 앨범 '에이싱크'가 특히 '영상 환기력이 강한 음향 작품'이라는 점에 착안해, 5.1 서라운드 채널로 재구성된 '에이싱크'를, 사카모토 류이치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독일의 스피커 회사 무지크엘렉트로닉 가이타인의 스피커로 재생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1999년 오페라 '라이프Life' 이후 오랫동안 그와 협업을 이어온 다카타니 시로가 맡았다. '에이싱크'의 수록곡을 사용해 태국의 감독 아피찻뽕 위라세타쿤이 새로 제작한 영상 작품과, 뉴욕에서 활동하는 2인조 아트 유니트 '작쿠바란Zakkubalan'이 뉴욕의 스튜디오와 개인 작업실의 이미지 및 사운드를 소재로 제작한 설치 작품, 이렇게 세 작품이 와타리움 설치음악전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번 서울 전시는 '에이싱크' 관련 세 작품 전부와 사카모토×다카타니 '워터 스테이트water state 1'과 '라이프-플루이드, 인비저블, 인오더블LIFE-fluid, invisible, inaudible…', 그리고 젊은 사카모토가 출연한 백남준의 '올 스타 비디오All Star Video'(1984) 등 그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각종 자료를 배치해, 그의 음악적 면모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음악적 시도야말로



숲에서 소리를 채집하는 사카모토 류이치.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의 한 장면.

그의 음악을 설명하는 키워드다. 이번 전시회와 영화들은, 그 다양한 시도의 일부를 살펴보면서 지금 그가 안고 있는 음악적 고민과, 그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에 대해 생각해 볼 흔치 않은 기회다. 예전과는 달라진 현재의 음악 제작 및 유통 환경에서 팬에게 작품을 전하는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5월 25일에 진행된 '아티스트 토크'에서 일본어 통역을 맡아 대화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티스트 본인이 들려준 작품 소개의 말을 옮기면서 글을 맺고 싶다.

"'에이싱크'라는 앨범은 애초에 음악을 만들면서 공간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작업입니다. 어떤 상태와 공간에서 어떤 음악이 들리는지 생각하고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현재 전시에서 보실 수 있는 '에이싱크-서라운드async-surround'의 공간에서 들으시는 소리가, 본래 제가 의도한 '에이싱크'의 소리에 더 가깝습니다. CD나 인터넷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2채널의 스피커를 거쳐서 3차원의 공간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듣는 것이지만, '에이싱크-서라운드'의 경우 5채널의 스피커에 영상까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소리에서만큼은 본래의 의도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발걸음 소리가 날 때 사람이 실제로 옆에서 걸어준다든지, 악기 소리가 날 때는 누가 옆에서 쳐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만, 그러려면 제가 10월까지 계속 연주하고 있어야 해서…(웃음)"*

글 **박창학** 음악 프로듀서·작사가·번역가. 지은 책으로는 '라틴소울', 옮긴 책으로는 '영화의 맨살' '나쓰메 소세키론'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 등이 있다.
그림 **김성경** 일러스트레이터

***출처** 블로그 'Ryuichi Sakamoto Social Project, Korea'(goo.gl/bqP1Pq)

황병기(1936~2018)

# 시대의 아방가르드

역사는 그를 가야금의 명인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가야금'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석一昔이 무색하게 아방가르드를 거듭해온 황병기의 일생을 돌이켜본다.





올해 1월 31일, 황병기는 점잖은 어르신의 모습으로 고인이 됐다. 그는 생전에 파격과 일탈을 일삼은 전사로 살아왔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라는 레테르letter가 그 역할을 하긴 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볼 때 '미궁'(1975)이란 작품이 맥락과 뿌리 없이 나온 해프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그를 '가야금 창작의 위인'으로만 기억하는 역사는 답답하다. 그를 기린다고 가야금 음악만을 나열하는 음악회도 솔직히 좀 답답하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가야금이라는 깔때기로만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법과 음악, 생활인과 예술가

황병기는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누나와 나이 차이가 열여섯 나는 귀한 종손이었다. 경기중학교에 재학하던 때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가야금을 처음 잡은 것은 피난지 부산에서였다. 전쟁 중이었기에 나라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는 절실한 마음으로 가야금을 배웠다. 방과 후에는 늘 국립국악원으로 향했다. 김영윤에게서 정악가야금을, 김윤덕에게서 산조가야금을 배웠다.

경기고 재학 중에는 덕성여대에서 주최한 제1회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56년에는 KBS가 주최한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입상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심상건으로부터 산조를, 나원화로부터 남창가곡 한바탕을 사사하기도 했다. 스스로 만든 커리큘럼을 통해 전통음악의 자양분을 빨아들이던 때였다.

대학을 졸업하던 1959년 서울대에 국악과가 개설됐고, 강의를 맡게 됐다. 훗날 서울대 교수를 지낸 이재숙과 김정자는 그때의 제자들이다.

1960년대에 황병기의 활동과 호기심은 다방면으로 뻗어나갔다. 1961년 한국교향악단 창단공연(지휘 임원식)에 그는 좀 특별한 연주자로 함께했다. 그가 협연한 정회갑의 '가야고와 관현악을 위한 주제와 협주곡'(1961)이 가야금과 서양관현악단을 위한 곡이었기 때문이다.

황병기가 국악 작곡을 시작한 해는 1962년이다. 이해에 서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에 선율을 붙여 동명의 작품을 발표했다. 1963년에는 가야금 독주곡 '숲'을 발표했다. 오늘날 '가야금 창작의 효시'라 일컬어지는 '숲'은 4장 구성이다. 1장 '녹음'과 4장 '달빛'은 정악에 뿌리를 두었고, 2장 '뻐꾸기'와 3장 '비'는 민속악, 그중에서도 산조의 원동原動이 느껴진다. 1970년에 현대무용가 육완순은 이 곡을 자신의 작품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황병기는 '숲'을 시작으로 '가을'(1963), '석류집'(1963), '가라도'(1968)를 세상에 내놓으며 작곡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한편 1960년대 초반에 스트라빈스키(1882~1971)의 '봄의 제전'(1913)을 들은 후에는 서양 현대음악에 빠져들었다. 황병기는 "기성인은 물론이요 급진적이라는 젊은이들도 18세기나 19세기의 소나타·교향곡·오페라만을 들으면서 스스로 현대음향예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음악 풍토"('경향신문' 1971년 9월 21일 자, '충격의 조화 국제 현대음악제를 듣고-황병기')를 비판하며 나아갔다. 작곡은 이러한 생각과 반성에 따른 움직임이었다. 백병동·강석희·도널드 서(서영세)·앨런 호바네스 등 서양음악을 주업으로 한 작곡가들과 친교를 맺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국악계의 선후배 관계로부터 자유로웠던 그는 여타 장르와 국경을 활발히 넘나들었다. 유치진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1964년 컬러 영화 '가야금'(감독 권영순)에선 음악을 맡았다. 우륵 역으로 김진규가 섰고, 김지미·신영균·신성일 등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출연했다. 1965년에는 황병기의 첫 음반이 나왔다. 미국 하와이대학교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주도한 음반에는 '숲' '가을' '석류집', 그리고 가야금 산조가 수록됐다. '석류집'은 1965년 호놀룰루의 현대음악제에서 본인에 의해 공연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자유에 대해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1974년 이화여대 한국음악과에서 교편을 잡기 전까지의 시절에 대해 "음악과 관계없는 일을 할수록 더욱 몰두한" 때였다며, "실업에서 이탈된 음악인인 동시에 음악에서 이탈된 실업인"으로 "양쪽 모두로부터 소외된 존재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1964년 협신물산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명동극장을 운영했고, 1967년 태흥화학공업주식회사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1968년 보림영화사와 1970년 도서출판 문조사를 세워 대표를 맡기도 했다. 문조사 시절에는 알베르 카뮈 전집을 내놓았다. 우리가 잘 모르던 황병기의 삶이다. 중요한 것은 가야금과 음악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 현대음악의 새로운 기수

결국 1974년, 이화여대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주전공이 생겼다. 황병기는 '침향무'(1974)를 시작으로 '미궁' '비단길'(1977), '아이보개'(1978), '전설'(1979), '영목'(1979) 등을 발표했다.

이 중 '침향무'와 '미궁'은 당시 통용되던 문법으로부터 거친 탈주의 궤적을 그린 작품이다. '침향무'는 당시의 관점

으로 보면 향香처럼 '은은한 아방가르드'였다. 이 작품은 가야금과 장구 연주자에게 다양한 기술을 요구한다. 양손을 사용해 현을 뜯고, 다섯 번째 손가락부터 퉁기고, 두 개의 줄을 동시에 울린다. 현을 비벼 소리 내고, 장구 연주자는 채로 북통을 치거나 손가락으로 두드리기도 한다. 반면, '미궁'은 '하드보일드 아방가르드'다. 이 작품은 김수근이 운영한 '공간사'에서 발행하던 잡지 '공간空間'의 100호를 맞아 위촉한 작품이다. 건축계의 모더니스트 김수근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현대음악제를 개최했다. 당시 뉴욕에서 활동하던 홍신자는 춤을 출 때에도 괴상한 인성人聲을 사용했다. 그녀가 '미궁'의 주인공이 된 중요한 이유다. '미궁'에서 홍신자는 웃고 울고 절규하고 신음한다. 발음이 부서진 소리는 음악과 문화라는 인간의 문명으로 마름질되기 이전의 소리다. 황병기는 활로 가야금 현을 두드리거나 문지른다. 장구채로는 공명판의 뒤를 문지르고, 술대를 현 사이에 끼워 앞뒤로 퉁긴다. 가야금의 머리 부분을 목탁처럼 두드리기도 한다. 두 사람은 음악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걸었다.

1970년대, "현대음악은 괴상망측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런 걸 뭐하러 들어' 하고 일축해버리는 풍조도 이제는 조금씩 달라져가는" 시기에 그는 현대음악의 중심에 서 있었다. 1973년 국제현대음악협회ISCM 한국지부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1974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현대음악제ISCM World Music Days Festival에 참여하기도 했다. 1978년 열린 제3회 범음악제에서 황병기의 공연 모습을 보자.

"황씨가 벌떡 일어서면서 박을 들고 힘껏 몇 번 치자 음악은 시작됐다. 때리고 치고 퉁기고 긁고 흔들고 눌러대고 목소리를 내 울고 불기까지 한다. (…) 연극을 보는 재미도 곁들인다. (…) 가야금을 세워놓곤 뒷전에서 한이 맺힌 듯 울어대기도 하고 한가로이 앉아 담배도 피워 물고 코도 풀곤 한다."('동아일보' 1978년 11월 18일 자, '뿌리내리는 현대음악')

1979년에는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이 주최하는 현대음악제에 황병기와 작곡가 박영희가 공동 초청되기도 했다. 그에게 이 시기는 우리 옛것을 알리기보다 '오늘의 것 알기'를 실천하던 때였다. 따라서 황병기의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국악사의 일탈적 장보다 한국 현대음악의 정식적인 장으로 다뤄져야 한다.

### 국경과 분단의 역사를 넘다

1986년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호가 국제적으로 넓어졌다. 이 시기에 황병기는 '하림성'(1982), '밤의 소리'(1985), '남도환상곡'(1988), '소엽산방'(1990) 등을 발표했다. 가야금 작품만 발표하던 예전과 달리 '하림성'은 대금 독주를, '소엽산방'은 거문고 독주를 위한 작품이었다. 조선의



01

01
2015년 5월 10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 국립국악관현악단
'베스트 컬렉션' 무대에서
'침향무'를 연주하는 모습



02

02
1975년 명동국립극장
(현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
'미궁' 초연 당시 모습
©황병기 공식 홈페이지

안중식이 그린 '성재수간도聲在樹間圖'로부터 악상을 길어 올려 '밤의 소리'(1985)를 내놓기도 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백남준은 '바이 바이 키플링'을 발표했다. 인도 출신의 영국 시인 러디어드 키플링이 "동양과 서양은 결코 만날 수 없다"라고 한 주장이 틀렸음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영상이 백남준의 소재가 됐다. 김영임이 부르는 '노들강변'에 맞춰 한강변의 풀물이 영상에 잡히기도 했다. 황병기는 뉴욕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다. 백남준은 이러한 면면을 모아 한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위한 총체의 부분으로 활용했다.

이 시기에 황병기는 산조에 매진했다. 1988년 '남도환상곡'은 산조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이다. '남도환상곡' 이전에 산조에 바탕을 둔 작품은 없었다. "산조의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산조를 바탕에 두고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그대로 산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일으킨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은 한반도의 잘린 허리를 넘었다. 1988년 월북 예술가에 대한 해금 조치가 발표되자 그들의 존재와 작품이 조명되기 시작했다. 당시 학계에서 파악한 월북 음악가는 약 30명. 황병기는 그중 정남희(1905~1984)의 가락을 바탕으로 1989년 정남희제 김윤덕류 산조를 발표했다.

1979년 자르브뤼켄 음악제에서 윤이상을 만나고, 1989년 정남희제 가락을 발표한 영향 때문이었을까. 황병기는 1990년 북녘 땅을 밟았다. 윤이상을 주축으로 한 범민족통일음악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됐고, 황병기는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단장이 됐다. 이들은 평양음악단(단장 김원균)과 함께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 2.8문화회관(현 4.25문화회관)·봉화예술극장 등 6개 공연장에서 공연했다. 남한 측 음악인 14명과 기자단 3명 등 민간인이 판문점을 통과해 북한에 입국했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방북 음악회였다. 이외에 1994년 '국악의 해' 조직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1990년대에 그는 여러 현장의 살림을 꾸렸다.

물론 그 시기에 작곡도 놓지 않았다. 1995년 박종원 감독의 영화 '영원한 제국'의 음악을 담당했고, '춘설'(1991), '달하 노피곰'(1996), '시계탑'(1999)을 발표했다. 1997년에는 정남희제 황병기류 산조를 발표했다.

## 말년, 안목의 아방가르드

'황병기제 아방가르드'의 또 다른 말은 '안목의 아방가르드'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안정적 행정보다 과감한 선택과 기용의 묘를 택했다. 일탈의 수가 놓일수록 악단의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안정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재독작곡가 정일련의 발굴이다. 그로 인해 국립국악관현악단은 현대음악적 문법을 구사하는 작곡가와의 호흡에 걸림돌이 없다.

역사는 그를 가야금의 명인으로만 기억한다. 그가 고인이 되던 날, 여러 장르의 예인들이 추모의 꽃을 들고 장례식장을 찾았다. 모두들 그와 진하게 만나 과감히 놀던 이들이다. 만약 그곳에 폭탄이라도 떨어졌다면 '한국 국악사'가 아니라 '한국 예술사'의 중허리가 날아갔으리라. 고인을 기리는 음악회가 9월, 국립극장에서 펼쳐진다. 그때의 객석 역시 다양한 예술가로 채워질 것이다.

*작품에 기재된 작곡 연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의 '한국 작곡가 사전'과 국립국악원의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집'을 따릅니다.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음악을 듣고 글을 쓰며 부지런히 객석과 책상을 오가고 있다. 급변하는 음악 생태계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미래를 '기획'하는 자료가 된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한말숙·유춘오** | 그림 **권준** 일러스트레이터

**참고문헌** 나효신 '황병기와의 대화', 풀빛, 2001.
박용구 '오늘의 초상', 일지사, 1989.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황병기 '오동 천년, 탄금 60년',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월간 '공간', 1975년 9월호.

### 음반 '황병기 제3 작품집-미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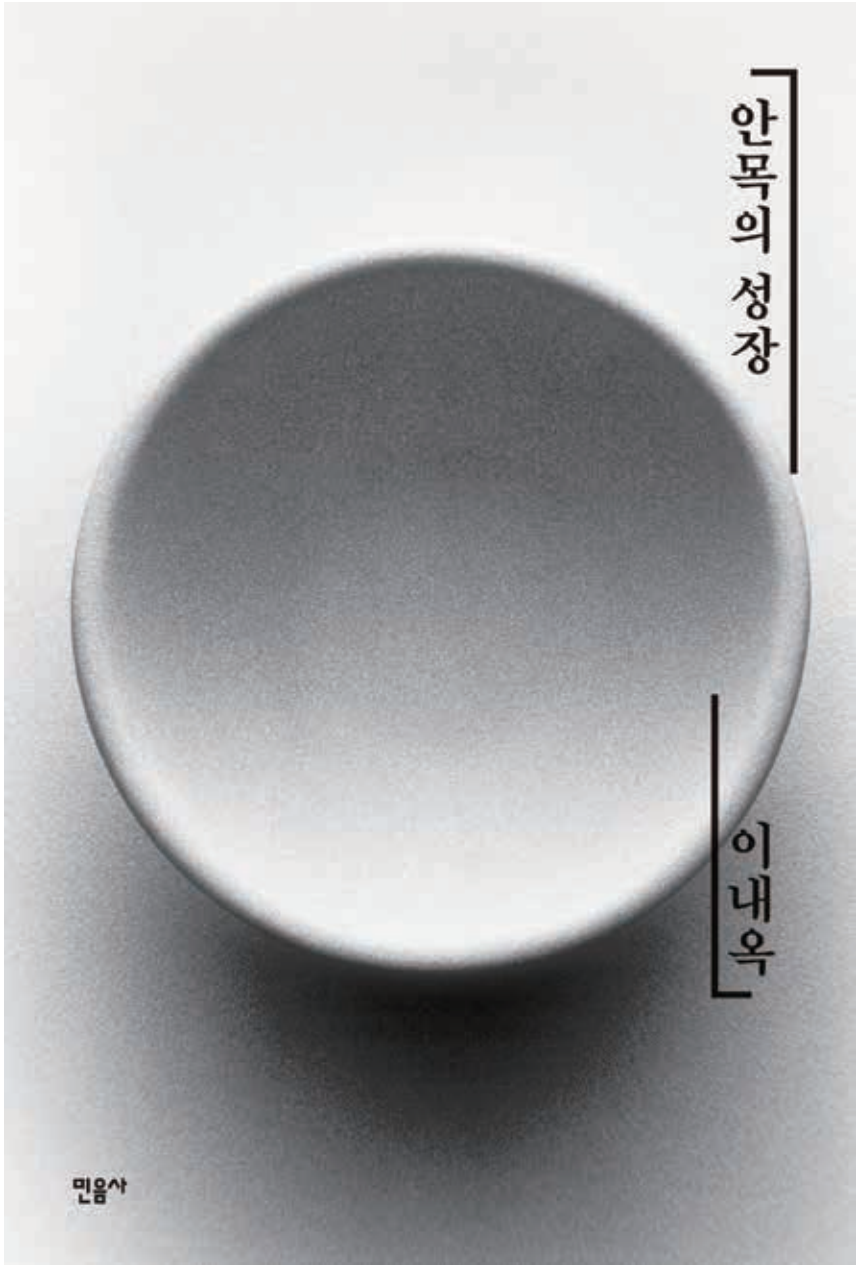


1993년 황병기의 세 번째 작품집으로 나온 음반이다. 2001년에 새롭게 나왔다. '미궁' 외에 그의 첫 작품인 '국화 옆에서', 가야금이 아닌 대금 독주곡 '산운'(1981)이 수록돼 있다. '미궁'의 성격으로 보나, 가야금 곡으로만 구성된 다른 앨범에 비교한다면 '황병기 외전'이라 할 만하다. '미궁' 때문에 밤에 트는 것이 금물(?)이 된 앨범이지만, '미궁'이 끝나고 '국화 옆에서'로 트랙이 넘어갈 때의 접점이 묘한 느낌을 준다.

이내옥 '안목의 성장'

# 눈이 트이는 나날의 일기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어떤 일은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요한다.
큐레이터가 그렇다. 저자는 안목이 트이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과 시간에 대해 정갈히 적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골동품 수집'이었다. 직업이란 돈을 벌어오는 일일 텐데, 어린 내가 보기에도 그 일로 딱히 돈을 버는 것 같진 않았지만 달리 부를 말이 없었다. 집 곳곳에도 오래된 물건들이 모셔져 있었지만 우연히 한 번 갔던 아버지의 사무실만큼은 아니었다. 사무실에는 말 그대로 골동품이 쌓여 있었다. 그 많던 물건은 어디로 갔을까.

오랜 시간이 지나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 전시 '세밀가귀細密可貴: 한국미술의 품격'을 보러 갔을 때, 나는 가난한 골동품 수집가의 비애를 절절하게 깨달았다. 세계 곳곳의 박물관과 개인 소장자들에게서 잠시 모셔온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물건들은 말 그대로 후광을 발하고 있었다. 문외한인 내게도 탐심이 일렁일렁 일었다. 수집가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관심이 온통 아름다운 것들에 쏠려 어린 딸이 "아빠의 직업은 골동품 수집이에요"라고 말하게 하는 삶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골동품 수집가 박병래 선생의 표현을 인용해 골동품 수집가들의 세계에 대해 들려준다. "때로는 청담풍의 도사다운 공기가 좌중을 휘감기도 하고, 혹은 소규모의 음모와 술수가 왕래하는 희한한 분위기"라고. 저자는 그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제정신이 아니랄까.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것이 골동 수집"이라고 이해한다. 박병래 선생은 덧붙여 "골동 취미에, 어느 단계를 지나 속된 말로 '미치게' 되니 완전히 손을 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다. 이 오래되고 아름다운 물건들은 사람을 홀리는 능력이 있다. 사실, 모든 아름다움이 그렇다.

이 책은 그 아름다움에 홀린 사람의 이야기다. 저자 이내옥은 골동품과 '국가가 공인한 관계'를 오래 유지해왔다. 34년간 국립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전주·청주·부여·대구·춘천의 국립박물관장을 지내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 및 아시아 부장을 지낸 것. 그만큼 그는 그 아름다움을 원 없이 가까이 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에 홀린다는 건 심미안이 있다는 이야기다. 심미안은 갖고 태어나는 것도, 누가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저자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박물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어려운 일에 대한 나의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토로한다. 우연찮게 박물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저자는 "박물관에서 가장 힘든 일은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틔우는 것이었다"고 단언한다. 그 시절을 그는 '눈뜬 장님'에 비유한다. 미적 안목 없이 박물관에서 일한다는 건 졸렬하고 볼품없는 일. 그러나 심미안을 틔우는 일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가 진척되고, 견문이 쌓여가면서 서서히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중에서도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심미안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이 책은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과 물건, 풍경의 이야기다. 그에게 감명을 준 사람들은 남다른 심미안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좇은 사람들이다. 한국의 1세대 산업디자이너인 정준, 풀꽃의 아름다움을 격조 높게 살린 풀꽃 갤러리 '아소'를 운영하는 주인아주머니, 일본 고류지 목조미륵반가사유상을 비롯한 불상을 전문으로 찍는 일본인 부자, 뜰의 아름다움을 심상하게 알려준 국립광주박물관장 이을호. 저자가 만난 사람들은 작품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끌어안는 법을 알려준다.

안목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골동품의 아름다움을 감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만 뜻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독자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이 아름다움을 발견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오솔길의 풍경을 들려준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문득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 저자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일러주는 최상의 금언"이라며 일본 미호박물관 설립자가 쓴 한 문장을 들려준다. "훌륭한 것들을 많이 보아라! 이류나 삼류가 아닌 최고의 것들을 보게 되면, 당신은 점차 훌륭한 것에 눈이 뜨일 것이다." 어떤 것이 훌륭한 것이냐고? 일단, 이 책을 보자.

글 **박사** 북 칼럼니스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책과 문화를 소개해왔다. 저서로 '가꾼다는 것'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는 일본의 근대 공예운동가·이론가·수집가다. 그가 주창한 '민예民藝'는 생활에서 쓰이는 물건의 소박한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의 도자기를 높이 평가했는데, 이러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야나기 무네요시의 민예·마음·사람'(야나기 무네요시 지음·김순희 외 옮김, 컬처북스, 2014)에 실려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출간된 야나기 무네요시 문고판 '사람' '사물' '마음'(전 3권)에서 조선과 관련된 글을 선별해 엮은 것으로 그의 민예관과 미학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그는 아름다움에 대해 '다기의 미와 선禪'이라는 글에 이렇게 적었다. "완전한 것은 마음에 위안을 주지 않는다. 너무나 빈틈이 없어서 답답한 느낌을 준다. 자유롭고 여유로운 안락한 세계는 아니다. (…)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것 즉, 불완전한 것이 오히려 미의 요소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감오락 음악여행단 임수빈 수강생**

# 새로운 감각을 일깨운 음악여행

토요일 오전 10시. 휴일 이른 시간에도 좋아하는 음악을 배우느라 늦잠을 잊은 아이들이 있다.
열 살 수빈이는 음악여행을 두 번 거듭하며 거문고의 낮고 둔탁한 소리에 푹 빠졌다.



여행은 설레는 단어다. 여권에 찍힌 출입국사무소의 도장을 본다.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 날짜, 그 사이의 며칠은 살아가는 데 꽤 큰 힘이 된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진전시킬 동력을 얻곤 한다.

오감오락 음악여행단은 우리 음악을 여행처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 3~6학년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4주에 걸쳐 국악기를 체험하고 각 지역의 아리랑을 배우는 등 우리 음악과 친해지는 여행을 떠난다. 3학년 수빈이가 오감오락 음악여행단에 함께하게 된 것은 '주말 수업'인 덕이었다. 평일에 직장 때문에 여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수빈이 어머니 정희숙 씨는 주말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다가 오감오락 음악여행단을 우연히 알게 돼 1기 수업을 신청했다. 수업 첫날, 부모가 참관할 수 없어 수빈이를 혼자 별오름극장에 들여보내며 내심 걱정도 했다. 그러나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의 표정은 밝았다. 같은 조를 이룬 친구들과 조 이름을 정하고 구호를 만들며 친해졌고, 그새 입에 착 붙은 수업 주제가를 곧잘 흥얼거렸다.

"수빈이가 어릴 때 다닌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시간에 국악을 배웠어요. 우리 장단에 맞춰 게임하며 놀고 7살 때엔 장구를 배워 졸업 공연에서 친구들과 사물악기를 연주했죠. 요즘 아이들이 국악을 멀게 느끼는 편인데 수빈이는 국악을 좋아하고 악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더라고요."

4주 과정 중 어떤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느냐는 질문에 수빈이는 '악기 소리 들리니?-우리는 악기 수색대'를 꼽았다. 이 수업은 꽹과리, 북, 장구, 징 등 익숙한 사물악기부터 박, 해금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국악기까지 직접 만져보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연주해볼 수 있다. 다양한 악기 중에 수빈이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을까.

"거문고요! 낮은 음이 좋아서요. 가야금은 손으로 연주하는데 거문고는 술대를 사용해서 연주하잖아요. 그런 것도 특이하고 재밌어 보여요."

1기 수업이 끝날 즈음 수빈이는 '수업 또 안 하는지' 엄마에게 물었다. 즐거웠던 만큼 아쉬움이 큰 모양이었다. 길게 고민하지 않고 5월에 진행하는 2기 수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배울 내용이 1기 때와 같아도 괜찮았다. 이번엔 친한 친구도 함께 신청했다. 5월, 수빈이는 긴 머리를 '똑단발'로 자르고, 봄 햇살 속에 친구의 손을 잡고 별오름극장에 들어섰다. "수빈이 머리 예쁘게 잘랐구나!"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두 번째 음악여행은 그렇게 따뜻한 인사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곳의 정서에 익숙해지면 그곳이 더 잘 보이듯 수빈이는 친숙함 속에서 친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여유를 보이며 수업을 다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수빈이가 받은 오감오락 음악여행단 1·2기 여권

오감오락 음악여행단에 함께한 학생들에게는 수업 첫날 특별한 여권이 주어진다. 이 여권에는 수업을 마칠 때마다 여행 코스 하나를 마쳤다는 의미의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수빈이에겐 1기와 2기 두 개의 여권이 있는데, 두 여권 모두 악기 스티커와 도장이 야무지게 찍혀 있었다. 수빈이는 좋아하는 거문고 도장을 가리키며 기회가 닿으면 꼭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피아노와 우쿨렐레를 연주할 줄 알고 노래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수빈이는 오감오락 음악여행단 이후 국악에 부쩍 관심이 늘었다. 정희숙 씨는 아이의 그런 반응이 신기하고 대견하다. 단지 전통이어서는 아니다. 우리 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수빈이 또래 아이들이 잘 모르고 지나칠 법한 감각 하나를 깨우는 일이기에.

"국악은 흥이 넘치는 한편 아이들에게 차분한 마음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즐겨 듣는 대중가요의 가사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가 국악을 좋아하면서 취향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좋은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요. 오감오락에 참여하면서부터 수빈이가 매일 아리랑을 흥얼거렸는데, 한국의 다양한 아리랑을 재미있게 배울 기회가 흔치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수업이 좋다고 느꼈어요."(정희숙 씨)

"국악을 배우면서 우리나라 지역마다 그곳의 아리랑이 있고, 부르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걸 배운 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경기아리랑이 제일 좋아요. 일단 따라 부르기 쉽거든요.(웃음)"(수빈)

오감오락 음악여행단은 수빈이에게 수업이 아니라 이름처럼 재미있는 '여행'이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국립극장으로 향하는 긴 길엔 피로보다 설렘이 가득했다. 오감오락 두 번의 여행은 끝났지만 주말에 수빈이 가족의 나들이는 계속될 것 같다. 뭐든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에너지와 재미있는 것을 찾아 경험하게 해주고픈 엄마의 마음이 기분 좋은 리듬을 이루기에. 인터뷰 자리에는 수빈이와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함께했다. 동생은 수빈이와 아웅다웅하다가도 누나가 피아노를 치면 탬버린을 들고 나타나 리듬을 맞추는 좋은 음악친구다. 2년 후에 동생이 3학년이 되면 5학년이 될 수빈이와 오감오락 음악여행에 함께 보내고 싶다고 정희숙 씨는 바람을 전했다. 그때쯤엔 수빈이의 거문고 사랑을 지면에 더 면밀히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글 **이아림** 오니트 에디터 | 사진 **김창제**

**오감오락 음악여행단**

'오감오락五感五樂 음악여행단'은 초등학교 3~6학년 아이들이 우리 음악을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4주 과정의 수업에서는 우리 소리와 다채로운 국악기를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지도로 체험하고, 지역의 아리랑을 배우며 직접 가사를 만들어 부르는 발표회를 갖는다. 특히 인기 수업인 '악기 소리 들리니?-우리는 악기 수색대'는 일일체험으로도 진행된다. 올해 '오감오락 음악여행단'은 1기(3월)·2기(5~6월)·3기(8월)가 진행됐으며, 특별반은 상반기(3~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운영된다. 매회 접수가 일찌감치 마감되니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청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둘 일이다.

**문의** 국립극장 예술교육팀 02-2280-5823

국립극장

National Theatre Live

#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연출 **마리안느 엘리엇** 원작 **마크 해던**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9.6–9 | 9.15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

**일시**
2018.9.6–9 / 9.15
평일 20:00 / 일요일 15:00
9.8 토 15:00 / 9.15 토 19:00

**장소** | 국립극장 달오름

**티켓** | 전석 20,000원
**제작** | 영국 국립극장
**주최** | 국립극장
**관람연령** | 15세 이상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BY ARTS COUNCIL ENGLAND

Photograph (Luke Treadaway) by Hugo Glendinning

**국립국극단 제7회 공연**

# 판소리 '흥부가'




1960년대 여느 포스터처럼 제한된 색상으로 인쇄됐다. 공연 횟수와 부제목은 하얀 고딕체를 사용하되 제목 '흥부가'는 붓으로 눌러쓴 듯한 글씨체가 인상적이다. 옅은 적갈색 바탕 한가운데 노란색으로 그려진 박은 보름달 같기도 해서 추석 특별공연임을 더욱 강조한다. 박 안에는 제비와 초가를 그려 넣어 흥부 이야기를 복스럽고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오른쪽에는 대금을 연주하는 모습과 장구춤을 추는 장면도 담겨 있어, 국립극장이 한국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이 공연은 김연수가 창을 지도한 '흥부가'다. 판소리라고 적혀 있으나 출연진이 다수인 사실로 미뤄 보건대 창극(당시에는 국극) 형태였으리라 추측된다. 김연수 명창은 창 지도뿐만 아니라 작품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또 박귀희·장영찬·김경희·정권진·강종철·김정희·박봉선·김소희·박초월 등 당대 내로라하는 명창들이 함께해 공연을 빛냈다.

글 **이주현**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학예연구사

**공연 정보**

**공연일자** 1964년 9월 19~23일
**공연장소** 국립극장 대극장
**제작진** 국립국극단(현 국립창극단)
**주요 출연진** 박초월·김소희·박봉선·김정희·강종철·정권진·김경희·장영찬·박귀희·김연수 外

**공연예술자료 이용안내**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약 22만 점의 공연예술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archive.ntok.go.kr)에서 누구나 쉽게 자료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며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면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공연예술자료실(예약 방문)
02-2280-5834
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온라인)
02-2280-5805

# 8월의 주요 소식

**국립극장 구내식당과 카페 O,hoo오후 오픈**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왼편 기계동 3층에 구내식당과 카페 O,hoo오후가 7월 9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 6개월간 구내식당 이전 공사로 인해 극장 내 직·단원들과 극장을 찾는 관객을 위한 식사 공간이 없었다. 이 때문에 마음 편히 식사하거나 차 한 잔을 즐길 만한 여유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새롭게 구내식당과 카페가 입점하면서 부족했던 편의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이곳 구내식당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립극장의 직·단원 및 극장 이용객, 더불어 남산 나들이객에게 편안한 식사를 제공한다. 식사 후에는 시원하게 탁 트인 카페 O,hoo에서 남산의 정취를 만끽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이용요금** 직원 4,500원, 외부인 5,500원 | **식당 운영시간** 점심 11:30~13:30, 저녁 17:30~19:00
**카페 운영시간** 10:00~20:00 | **이용문의** 02-2280-4186




**2017-2018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Thank You 파티 열어**

국립극장은 지난 7월 14일 2017-2018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Thank You 파티'를 개최했다. 장소는 작품을 기획·연습하는 공간, 뜰아래연습장 국립창극단 연습실이었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창극단의 '뜰아래 음악회'를 시작으로 국립극장에 대한 관객의 소회를 나눴다. 사회는 국립무용단 김병조·박소영 단원이 맡았으며 국립창극단의 김성녀 예술감독과 국립무용단의 김상덕 예술감독, 그리고 3개 전속단체의 단원들이 참석해 관객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또한 이번 파티에는 '2017-2018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패키지 구매자 대상 항공권 이벤트'에 당첨된 이상훈 씨의 '트로이의 여인들-빈 답사기'를 함께 나누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유럽에서 만난 우리 창극과 이를 지켜보던 유럽인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해, 한층 의미 있었다. 이외에도 시즌과 관련된 퀴즈 이벤트가 진행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마무리됐다.

국립극장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2018-2019 레퍼토리시즌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객을 위한 특별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극장 교사직무연수**
**'전통예술을 활용한 연극놀이 교육법' 운영**

국립극장은 매년 방학 기간에 현직 유·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직무연수'를 운영한다. '교사직무연수'는 우리 공연예술을 콘텐츠로 다루는 창의적 교수기법을 체험활동을 통해 배워보고, 그것이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연수원의 심의를 거쳐 '특수 분야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아 내실 있게 관리·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7.6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는 '전통예술을 활용한 연극놀이 교육법'을 부제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판소리·민요·탈춤 등 전통예술의 기초를 몸으로 배우고, 연극놀이를 연계한 창의적 교육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 현장에 돌아가 교과 및 창의활동, 동아리활동 지도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안을 서로 공유한다. 접수는 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창의·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전국 유·초등 교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립극장 예술교육팀 02-2280-5820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하남·익산·울산 3개 도시 투어 공연**



국립창극단(예술감독 김성녀)이 대표 레퍼토리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하남·익산·울산의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한다. 2014년 초연 이래 매 공연에 쏟아지는 호평과 매진 행렬에 힘입어 구리·안산·여수·이천·군포 등 지역의 주요 공연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하지만 빼곡한 국내 및 해외 공연 일정으로 그에 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10월 서울 공연을 앞두고 그간 화답하지 못했던 하남문화예술회관(8월 26일)·익산예술의전당(9월 1일)·울산문화예술회관(9월 8일)에서 차례로 공연을 올린다.

고선웅 극본·연출, 한승석 작창·작곡의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초연 당시에 창극 사상 최장기간인 26일간 23회 공연됐고, 창극 최초로 제8회 차범석희곡상 뮤지컬 극본상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유럽 현대공연의 중심이라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의 테아트르 드 라 빌에 창극 최초로 공식 초청되어 2,802명의 프랑스 관객과 조우하며 유럽에 창극을 알리기도 했다. 2017년 4월, 국립극장에서의 네 번째 재공연(2014 초연, 2015 재공연, 2016 재공연, 2017 재공연)에서도 객석점유율 100퍼센트를 넘기며 그 신화를 이어갔다.

이처럼 의미 있는 기록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 올가을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공연이 이어지니 극장을 찾아 활기차고 유쾌한 옹녀의 기운을 선물받기 바란다.



**국립무용단 '묵향', 해남·강릉·부산 3개 도시 투어 공연**

국립무용단(예술감독 김상덕)이 대표 레퍼토리 '묵향'을 해남·강릉·부산의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한다. 2013년 초연된 '묵향'(안무 윤성주, 연출 정구호)은 한국춤의 스타일리시한 재해석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간결하게 정제된 한국 전통춤의 멋을 현대 감각으로 보여준 이 작품은 전통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해외에 알리며, 홍콩·프랑스·베트남 등 세계 무대를 수놓는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한국무용 최초로 초청된 홍콩예술축제에서는 전회 매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레 뉘 드 푸르비에르 페스티벌에서는 "우아함과 기술적 기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춤"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렇게 해외 관객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낸 국립무용단이 올 하반기에는 해외가 아닌 국내 관객을 보다 가깝게 찾아갈 예정이다. 9월 13~1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9월 28일 강릉아트센터, 10월 6일 부산시민회관까지 3개 도시에서 '묵향'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초청 1순위 작품으로 손꼽히며 꾸준히 전국 각지의 무대에 오른 '묵향'. 올가을에도 '묵향'의 매력을 전국 방방곡곡의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극장

National Theatre Live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줄리어스 시저

데이비드 콜더 미셸 페어리
데이비드 모리시 벤 위쇼

9.8 | 9.12–15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

**일시**
2018.9.8 / 9.12–15
평일 20:00 / 일요일 15:00
9.8 토 19:00 / 9.15 토 15:00

**장소** | 국립극장 달오름

**티켓** | 전석 20,000원
**제작** | 영국 국립극장
브리지 시어터
**주최** | 국립극장
**관람연령** | 12세 이상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BRIDGE THEATRE

BY

ARTS COUNCIL ENGLAND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박지영·김진영·문마리아

# 꿈꾸는 당신, 도전하라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만큼 모두가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박지영·김진영·문마리아

지난 6월 17일, 서울 대방동의 한 중·고등학교.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다. 긴장감이 맴도는 그곳에서 이들은 누군가의 꿈이거나 특별한 호기심 혹은 일상에서 벗어난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누구보다 화려하게 주목받길 원할 테지만, 무대 위 그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건 무대 뒤에서 묵묵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무대예술전문인이다. 그리고 지금, 무대예술전문인이 되기 위한 과정, 그 치열한 꿈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사람들을 만났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필기시험장에 모여든 응시생은 무려 1,500여 명. 고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응시생보다 한발 앞서 현장을 정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박지영 씨와 문마리아 씨다. 이들은 누군가의 꿈이거나 특별한 호기심 혹은 일상에서 벗어난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다.

자격검정 시험은 기계·조명·음향 분야를 각각 1·2·3급으로 나누어 치러진다. 각 분야의 급수마다 서류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다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기까지 1년간 준비·진행·사후관리의 모든 업무를 검정위원회가 도맡아 한다.

김진영 씨는 이 과정에서 문제 개발과 검토를 담당한다. 1년 내 문제 개발에 힘쓰는 그녀는 필기시험이 있기 약 일주일 전부터 15명 내외의 출제위원과 한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준비한다. 출제가 완료된 문제를 인쇄하고 이를 시험장으로 옮기고 그러고 나서 시험장에서 문제가 개봉되는 그 순간까지 출제위원들은 한정된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문제 유출을 막고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공정한 심사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과정 역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탓에, 지금껏 필기시험장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 대신 그 치열한 현장은 박지영 씨와 문마리아 씨가 지킨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지리적 위치나 교통은 편리한지 등을 검토해서 시험장을 선정하고, 시험 감독관들을 모집하고 시험 전날 길 안내, 좌석 배치도 그리고 각 반에 시험장 표시를 붙이는 것도 저희 업무예요."(박지영) 지난 6월 17일 진행된 필기시험 당일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눈에 보이는 곳부터 안보이는 곳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시험을 진행했다. 또, 틈틈이 전화 문의를 처리하기도 한다. "2급부터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경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세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둔 관련 서적이나 표준 교재 등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전화로 문의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홈페이지 정보를 많이 활용하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문마리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만큼, 모두가 '합격'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더불어 그들 곁을 지키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라는 수호신의 노고도 기억해주길.

글 **김보나** | 사진 **전강인**



여우락 대학생 워크숍 6기 참가자들

# 맺음

PHOTO ESSAY

덥고 습한데 비까지 내렸다.
옷이야 젖었거나 말거나, 어색한 첫인사를 나눌 일이
더 걱정인지 헛기침과 숨소리가 유난히 크다.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날,
그 끝을 알 수 없어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모두 처음 만난 사이였다.

'여우락 대학생 워크숍' 참가자들이 머문 곳은 딱 두 곳, 극장과 숙소였다.
워크숍은 밤이고 낮이고 온종일 음악과 함께하는 일정이었다.
매일 음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하며,
어찌 끝낼지 모를 즉흥곡을 함께 마음 모아 합주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앞으로 몇 년간은 건강한 자양분이 돼줄 시간을
각자 쌓고 있었다.
음악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불안함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모두 한꺼번에 소용돌이친 4박 5일이었다.

걱정스러운 마음과 닮았던 비 오는 날의 첫 만남이었지만,
햇살 가득한 날 울고 웃다가 기쁘게 손 흔들었다.

글·사진 **전강인** 국립극장 사진가

'맺음'은 단순한 끝이 아닌 '이음'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쉼표 삼아 국립극장은 또 다른 공연을 준비합니다.



국립무용단 박혜지

## 독 자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9.12.31.

서울중앙우체국 승인
제40370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국립극장 미르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월간「미르」담당자 앞

0 4 6 2 1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8월호 독자의견**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공연 초대권 등 선물을 드립니다.

---

**01 「미르」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02 이번 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03 「미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손 안에 극장을 한가득!

공연 제작과정부터 무대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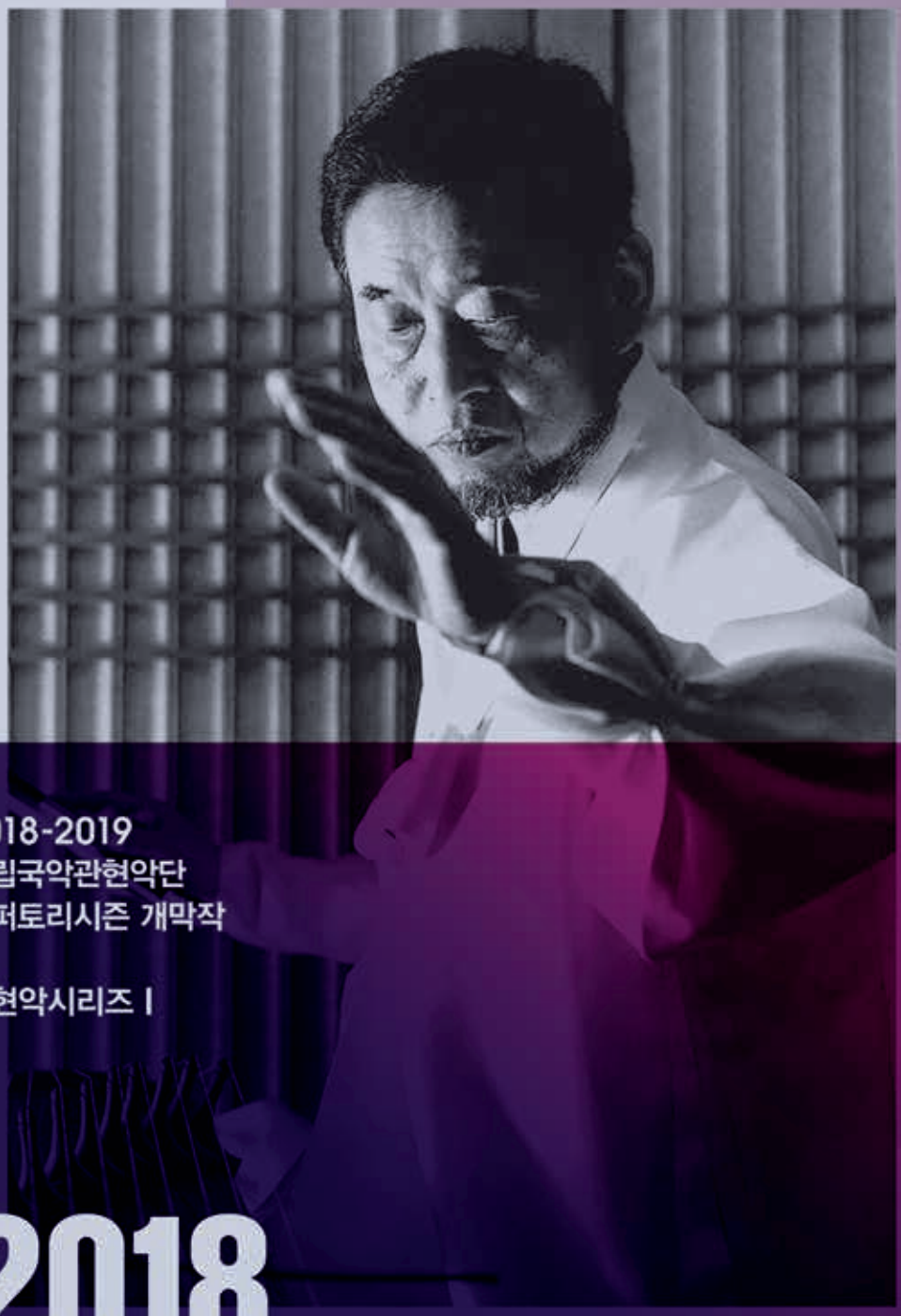
국립극장 N통이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facebook.com/NTOKstory @ntong_ntong youtube.com/ntong2 blog.naver.com/ntok2010 @ntok 국립극장N통이

국립극장 | 국립국악관현악단

2018 MASTERPIECE
HWANG BYUNGKI



2018-2019
국립국악관현악단
레퍼토리시즌 개막작
—
관현악시리즈 I

# 2018 마스터피스 황병기

국립극장 달오름
—
**9.18**(화)
**20:00**
황병기의 실내악

작곡
황병기
—
**9.19**(수)
**20:00**
황병기와 관현악

지휘
원영석

작곡
임준희
나효신
정일련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